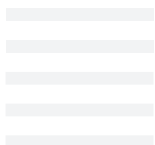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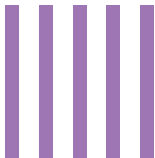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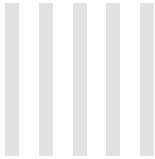




제5편

목포의 교육



제1절 목포의 근대 학교 설립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2절 개화기 목포의 사립학교 확대와 쇠퇴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3절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교육운동과 일제의 억압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4절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목포 교육의 특징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1장 목포 개항과 근대 교육 제도의 도입

목포교육은 목포 개항과 함께 시작되었다. 목포가 개항한 1897년 목포 최초의 학교인 목포북교초등학교가 ‘무안항(務安港)공립소학교’라는 이름으로 무안읍에 설립되었다. 무안항공립소학교는 갑오개혁이후 공립소학교를 전국에 신설하면서 설립한 근대적 공립학교였다. 1897년에 시작된 목포의 교육은 이제 12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무안부였던 목포 최초의 학교가 무안읍에 설립된 것은 당시로서는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목포는 무안부로서 아직 무안에 소속된 지역이었고, 개항 당시에는 인구가 아주 적어 학교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작은 규모였던 무안부 목포가 개항하자마자 급속도로 성장·발전하면서 학교가 필요하여, 무안읍에 있던 소학교를 목포항으로 이전한 것이다.

최초의 중등학교는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파송한 유진 벨(Eugene Bell, 배유지) 목사와 스트래퍼(Fredrica E. Straeffer, 서여사) 선교사는 1903년 목포 최초의 중등학교인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를 설립하였다. 개항한지 불과 6년 만에 최초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1900년대 중반 일본의 침탈이 점점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민족의 교육 구국운동도 강화되었다. 많은 목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통한 구국 운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교육운동은 일제의 강점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우리나라 교육은 일제가 독점하는 국가교육체제에 편입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확대되었지만 일제의 억압으로 학교교육은 그다지 확대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의 탄압으로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가 폐쇄되는 고초를 겪게 되었다. 중등 수준의 공립학교를 세우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목포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둔 사례도 있었다. 목포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목포공립상업학교가 1920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일본 패망 직전에 목포중학교, 목포

공립공업중학교 등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목포 개항 이후 지금까지 목포의 교육은 크게 두시 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근대 목포 교육이 시작된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민족의 교육 근대화 노력이 탄압받던 시기가 첫 번째 시기라면, 두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민족이 근대 교육으로 발전시킨 시기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첫 번째 시기, 즉 목포 개항이후 일제말기까지 목포에서 일어난 교육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에는 근대 교육을 도입하려는 목포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고, 이들의 노력을 억압하여 근대 교육의 발전을 저지하고 왜곡한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이 있었다. 목포 교육을 보면 교육의 근대화를 이루려는 우리 민족의 노력과 이를 억압하려는 일제의 행위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노력과 일제의 억압이 교차하는 해방이전의 교육사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을 포함한 일제강점기의 정책이 한국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일부 친일적 해석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구체적인 지역 교육사인 목포 교육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이들의 친일적 매국적 역사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목포는 1897년 개항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목포 개항은 조선 정부가 자주성을 지키면서 근대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근대화 정책과 국방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원이 필요하였는데, 개항장을 늘리고 무역을 확대하면 관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지주·상인층을 육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자본가층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상도 갖고 있었다.⁰¹⁾

목포가 개항을 하면서 이전의 봉건적인 촌락이 줄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장을 열게 되었다. 서양의 도시가 처음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목포는 자유로운 공간을 열게 되었다. 이곳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집단들은 상인, 농민 뿐 아니라 향리, 양반 지주층 등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처럼 목포 개항 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목포가 개항하기 이전에는 인구가 600여 명에 불과하였지만⁰²⁾ 1897년 목포가 개항하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개항 직후 조선인이 2,600명에 이르렀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더욱 증가하여 7,500여명으로 늘어났다. 목포에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인 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1897년 200여 명

01)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16쪽.

02) 같은 책, 109쪽.

에 불과하였지만, 일제강점 직후인 1912년에는 5,200여 명으로 늘어났다.⁰³⁾ 목포 인구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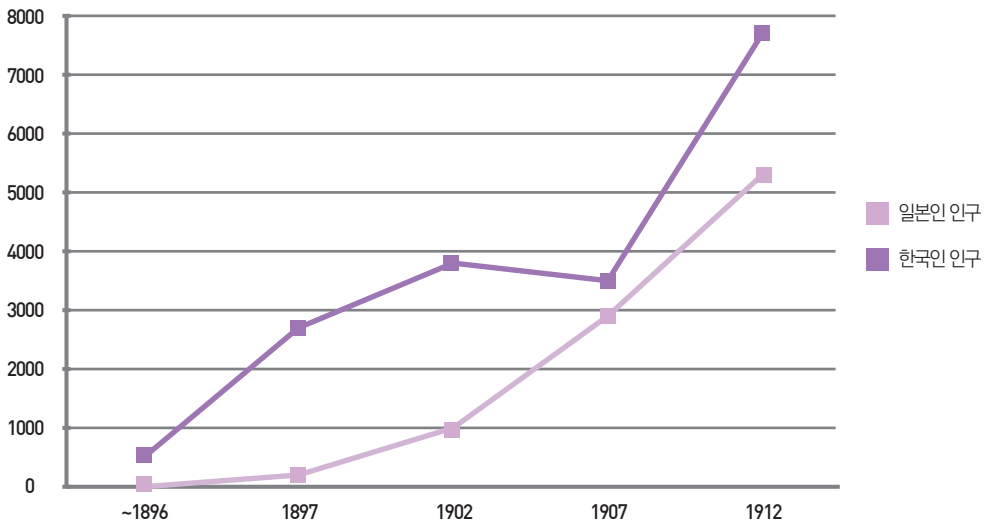


그림 1 목포 개항 전후 목포 거주 인구 변화

이들은 외국과 소통하는 목포라는 항구를 통해 서양근대 문명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까운 일본뿐 아니라 서양의 문화도 유입할 수 있었다. 목포는 이러한 자유와 소통의 분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활동을 쉽게 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유진 벨 목사의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목포에서 최초로 중등학교를 설립한 유진 벨 목사는 원래 나주에 선교 기지를 건설할 생각이었다. 나주는 오랫동안 보수적인 양반세력이 강하고 전통적 유교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나주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나주를 떠나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와중에 결국 유진 벨 목사 가족들은 목포로 가게 되었다. 목포를 한국의 서남해권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선교지를 목포에 세우게 되었다. 목포가 자유무역항이 된

03) 이종화 외, 『목포·목포사람들』, 경인문화사, 2004, 43~44쪽.

04) 이 그래프는 『목포·목포 사람들』에 나와 있는 통계를 가지고 필자가 작성한 것임.

다면 동남아시아를 연결할 뿐 아니라 중국대륙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한 것이었다.⁰⁵⁾ 결국 목포에서 활동한 유진 벨 목사가 전남 지역에서 기독교를 가장 먼저 전파하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 근대적인 학교도 세우게 되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목포에서는 새로운 시민 계층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민계층은 사립회사를 만들고, 민족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립학교를 세웠다. 또한 호남학회에 가입하여, 민의소를 만들기도 하였다. 1900년대 초 애국계몽운동으로 활발하게 일어난 교육운동은 1908년 사립학교령 이후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억압을 받게 되었다.

제1절 목포의 근대 학교 설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는 외세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고 외국인과의 교섭이 급속하게 늘어나던 19세기 후반에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이 설립하였다.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1880년에는 원산, 1883년에는 인천이 속속 개항하면서 외세의 압력이 거세게 몰려왔다.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도전에 대응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근대적 부국강병을 실현하고 자주적 근대화를 실현해야 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절실한 일 중의 하나는 열강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신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었다.⁰⁶⁾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민족이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한 근대적 학교가 원산학사이다. 서당을 개량한 원산학사는 개화파 관료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민간인의 주도로 개교되었다.⁰⁷⁾ 원산은 1880년 4월 개항과 동시에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지고, 일본 상인들의 상업 활동이 시작되었다. 일본 상인들의 침투를 의식한 덕원·원산의 지방민들이 대응책을 고심한 끝에 근대학교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 지역 지방민들은 1883년 1월 새로 부임한 덕원 부사 겸 원산감리 정현석에게 새로운 근대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현석은 당시 서북 경략사인 어윤중과 원산항 통상담당의 통리기무아문 주사인 승지 정선시의 지원을 받아 관민이 합심하여 설립하였다.⁰⁸⁾

조선정부는 더 이상 근대화정책을 미룰 수가 없었다. 최초의 개항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1895년에 근대적 개혁정책인 갑오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 근대화를 이루

05)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목포 정명여자 중·고등학교 100년사』, 2003, 63~64쪽.

06) 신용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설립에 대하여」, 『한국사연구』10, 한국사연구회, 1974, 191쪽.

07) 같은 논문, 191~204쪽.

08) 홍영기, 「전남의 신교육운동과 대한제국」, 『전남 학교의 역사』, 전라남도교육청, 2015, 55쪽.

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이후 각종학교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어 다양한 분야의 학교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1900년대까지 100여개의 공립소학교를 설립하였고, 1906년까지 113개의 관공립학교를 설립, 관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시 황해도가 포함된 관서지역에 1,035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전국 사립학교의 49.7%가 관서지역에 집중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277개교(13.3%), 관북지역에 246개교(11.8%), 영남 지역에 239개교(11.5%)가 설립되었다. 호남지역에는 115개교(5.5%)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⁹⁹⁾

소학교령에는 소학교 설립 취지, 학교 종류, 학생들의 해당연령, 교과서 종류, 편제 및 교과목 등이 있었다. 소학교는 심상과(3년)와 심상고등과(2~3년)로 나뉘어 있었다. 초등교육이 2단계로 구분되어 있었던 셈이다. 조선 정부가 조선개국 504년¹⁰⁾ 그러니까 1895년 발표한 소학교령의 내용은 <표 1>과 같다.¹¹⁾

표 1 갑오개혁 당시 소학교 제도 내용

구분		내용
설립 취지		아동의 신체 발달을 위하여,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얻게 함
소학교 종류		관립 소학교, 공립소학교, 사립소학교
학령(수업연한)		만7세~ 만15세(8년)
교과서		학부가 편찬하거나 학부대신(學部大臣)이 검정한 교과서
편제 및 교과목	심상과 (3년)	필수과목 :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선택과목 : 체조, 본국(本國)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 제봉(여자)
	심상 고등과 (2~3년)	필수과목 :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사, 이과, 체조, 제봉(여자) 선택과목 : 외국역사, 외국지리, 도화

1895년 갑오개혁 이후 목포에는 초등 수준의 학교 2개 학교와 초·중등이 아직 완전히 분화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중등학교로 발전하는 학교 2개가 설립되었다. 초등의 경우 목포 최초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무안향공립소학교가 무안읍에 1897년 설립되었다가 1901년 목포로 이전하였다. 이와 함께 목포 공립심상소학교는 목포항이 개항한 이후 목포에 거주한 일본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급히 설립되었다.

99)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0쪽.

10) 조선은 1392년 개국했고 이 해가 조선개국 1년이 되니까 개국 504년은 1895년이 된다.

11) 이 내용은 필자가 목포북교초등학교, 『목포북교100년사(1897~1997)』, 1997, 121쪽에 게재된 「관보(제209호)」의 내용과 『전남 학교의 역사』에서 인용한 표(59쪽)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중등수준에서는 미국 남장로회에서 파견된 선교사 유진 벨과 스트래퍼가 선교 목적으로 1903년 목포 영흥학교와 목포 정명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전남에서 최초로 설립된 중등학교였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역사에서 기독교가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 목포시에 설립된 학교 현황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대한제국기 목포시 학교 설립 현황

구분	설립 학교
초등	- 무안향공립소학교(1897) - 목포 공립 심상소학교(1898)
중등	- 목포 정명여학교(1903) - 목포 영흥학교(1903, 영흥서당, 영흥 소학교, 영흥 소학교 중학부)

1. 목포 최초의 근대 학교: 북교초등학교(무안공립소학교)

목포 최초의 근대 학교인 목포북교초등학교가 설립된 계기가 바로 이 소학교령이었다. 소학교령을 공포한 후 당시 지방 행정조직이었던 각 부와 군은 그 관내의 학령아동을 취학시킬 공립학교를 세우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소학교령에 따라 전국에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고 전남 목포 인근 지역에는 북교 초등학교의 전신인 무안향공립소학교가 1897년 설립되었다.

목포가 개항되기 직전 1897년 3월 1일 무안을 자리에는 무안향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 무안향공립소학교는 개교 이래 재정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목포의 김봉규(金奉珪) 등 객주들이 1901년 관에 청하여 이 학교를 목포로 이전하게 되었다. 당시 목포의 경우 학교가 전혀 없어 아동들의 교육에 어려움이 컸었는데, 목포에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무안에서 목포로 이전하였지만 무안향공립소학교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01년 11월 황성신문에 무안감리서가 교원(李熹宰 등)의 봉급을 몇 달씩 주지 못하고 있어 폐교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¹²⁾ 한 것을 보면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다.

1902년 무안향공립소학교는 감리와 경무관 등의 도움으로 새로운 교사를 지어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사들이 교육에 열심이어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무안향공립소학교는 목포로 이전된 후에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여 학생 수도 겨우 10여 명 안팎이

12) 『황성신문』 1901. 11. 11.; 『황성신문』 1902. 02. 15.;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53쪽에서 재인용.

었다. 무안항공립소학교가 크게 활기를 찾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일제에 의해 사립학교가 탄압을 받으면서부터였다. 일제에 의하여 폐교되거나 억압을 받는 사립학교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무안항공립소학교로 전입해 왔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1907년 4월 1일 교육령이 공포되면서 무안항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을 때, 한국인 이종원이 운영하던 사립 목포흥진학교를 흡수 병합하여 현재의 위치에 교사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1910년 일제 강점 다음 해인 1911년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교세가 급격하게 성장·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보통학교로 개편된 1907년부터 1910년까지 무안항공립보통학교로 전입한 학생들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¹³⁾

표 3 보통학교 개편 후 학생 전입 상황 (1907~1910)

입학 전 경력 \ 입학 시기	1907	1908	1909	1910	계
무안항공립소학교	9			1	10
흥진 학교	39				39
영흥 학교	2	4	5		11
사립무안 여학교		24	5	20	49
양생 학교		2		1	3
진흥 학교		1	2		3
야소교 학교		3	1	1	5
예비 학교		15	5		22
유치 학교			1	19	20
달성 학교				8	8
노동 학교			1	9	10
양사 학교		3			3
사숙(서당)	4	7	13	8	32
기타*	4	1	11	15	31
계	60	60	44	82	246

주: 기타는 외지학교 전입자(개성사립보통학교, 마산공립보통학교, 광주보통학교, 공립부산보통학교, 서울관립어의동학교 등) 및 입학 전 경력 불명자

이 표를 보면 9명에 불과했던 무안항공립소학교가 3년 만에 무려 246명으로 늘어났음을 볼 수가 있다. 폐교된 흥진학교 학생 39명을 포함해서 많은 수의 사립학교 학생들이 목포공립보통학교로 전입하여 왔다.

13) 이 표는 목포북교초등학교, 앞의 책, 34쪽의 표를 필자가 수정한 것임.

이와 달리 무안향공립소학교에서 전출한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목포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된 이후 같은 기간(1907~1910) 동안 다른 학교로 전출한 학생 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보통학교 개편 후 학생 전출 상황 (1907~1910)

입학 전 경력 \ 입학 시기	1907	1908	1909	1910	계
무안향 공립 소학교	5			1	6
흥진 학교	6				6
영흥 학교	2				4
사립무안 여학교		2		20	40
양생 학교		15	5	1	2
진흥 학교		2			3
야소교 학교		1	2	1	5
예비 학교		3	1		7
유치 학교		2	5	18	18
달성 학교				2	2
노동 학교				9	10
양사 학교			1		
사숙(서당)		3	6	6	15
기타*	2	1	3	7	13
계	15	28	23	65	131

무안향공립소학교가 무안향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꾼 후 여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08년 12월에 무안읍 교육 부인회에서는 목포에 있는 사립 여자학교를 무안향공립보통학교에 합병하기로 결정하여 보통학교에 여자부를 설치하였다.¹⁴⁾ <표 1>에서 보면 이미 1908년에 사립 무안여학교 여학생들이 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남녀공학은 이듬해인 1909년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남녀공학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24년 여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목포공립여자보통학교를 분리하였지만, 1928년에는 다시 이 학교를 폐교하여 합병하였던 것이다.¹⁵⁾

목포향공립보통학교는 교명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32년에 목포제일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뀐 이후, 1938년에 ‘목포 북교 공립심상소학교’로, 1940년에 ‘목포북교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1941년

14)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70쪽.

15) 같은 책, 269~270쪽.

‘목포북교공립초등학교’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광복 후 1946년 7월에는 ‘목포북교국민학교’로, 1996년 3월에는 ‘목포북교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다.¹⁶⁾

2. 목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유달초등학교)

목포 개항 이후 목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1897년 10월 1일 목포가 개항한 이후 일본인 거주자가 증가하여 40~50여 가구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립학교가 목포 거류민단 목포 심상소학교였다. 처음에는 5~6명의 학생을 모아 소학교 과정 교육을 시작하다가, 1899년 11월에 교사 1동을 신축하였다. 1901년에는 일본인의 가구 수가 250호, 인구 수가 94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 학교 학생 수는 3학급 67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¹⁷⁾

이후 1912년 목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1938년에는 목포산수심상고등소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인이 물러가자 목포산수심상고등소학교가 폐교되고, 1945년 12월에 목포유달국민학교로 새롭게 개교하였다.

3. 전남 최초의 중등학교: 목포 정명여학교, 영흥중학교

전남 최초의 여성 중등학교가 목포에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이었다. 당시 미국, 캐나다 등에 있는 여러 선교회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기독교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선교회가 전담하는 형태로 선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네비우스(Nevius)가 한국에 와서 제안한 정책으로 선교사들이 조직한 선교사 연합 공의회에서 네비우스 정책을 근간으로 선교정책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전라도와 충청도는 미국 남장로회가 전담하고, 평안도·황해도·경상북도 지역은 미국 북장로회가, 경상남도는 호주장로회가, 함경도 일대는 캐나다 선교회가 맡기로 합의하였다.

이 네비우스 정책에 따라 미국 남장로회는 1894년 전주에 선교 거점(station)을 개설한 이후, 1896년 나주에 선교 거점을 개설하기 위해 유진 벨목사가 나주로 내려왔다.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17)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과 같음.

나주 사람들은 서양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진 벨의 선교활동도 순탄치 못했다. 나주 사람들은 유진 벨에게 나주를 떠나라며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벨 목사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목포를 한국의 서남권 선교의 선교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미국 남장로회는 목포가 개항을 하자 벨 목사를 목포로 파견하였다. 나주와는 달리 목포는 선교사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지 않고 있었다. 목포 사람들은 다소 경계심을 갖고 있었지만 호의를 나타내면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고 한다.¹⁸⁾

1899년에는 여선교사 스트래퍼가 목포 선교사로 왔다. 스트래퍼 선교사는 남자선교사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부녀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1년 뒤인 1899년에는 주일예배 참석자가 30여 명으로 늘었고, 1900년에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스트래퍼와 유진 벨 목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스트래퍼는 여성을 대상으로 매주 한 번씩 ‘여성 학급(The Woman’s class)’을 조직하여 가르쳤다.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공부반이었다. 일요일에 열리는 주일학교에서 주중에 공부시간을 내던 스트래퍼는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02년 봄 마침내 스트래퍼 선교사는 목포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다. 남녀 학생들 약 15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한글과 자연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독본과 지리를 공부하였다.¹⁹⁾

교육 사업을 통해 학생이 점점 늘어나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가르치게 되었다. 1903년 유진 벨 목사는 남학생들만 따로 모아 사랑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스트래퍼 선교사는 유진 벨 목사의 문간채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교육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유진 벨 목사는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학교를 만들기로 선교본부와 결정을 하였다. 1903년 10월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선교회의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남녀 각각의 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지금의 정명여자 중·고등학교 전신인 목포 여학교와 영흥중고 전신인 목포학교가 각각 설립되었다. 학교가 교회에서 정식으로 분리되어 조직되기에 이른 것이다. 마침내 1903년 11월 3일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를 개교하였다.²⁰⁾

처음 개교할 당시에 정명여학교는 작은 규모였다. “명칭은 소위 목포 여학교라 하였으나 학생은

18)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65쪽.

19) 앞의 책, 71쪽.

20) 같은 책, 72쪽.

10여명에 불과하였고 교장 서여사, 교사 조금남 두 사람에 의하여 교무가 처리되었다.”고 한다.²¹⁾

1906년 4월에 부임한 제2대 교장 변 부인(Mrs. Preston)²²⁾부터 4대 교장 마틴(J.A. Martin) 교장까지가 학교의 틀이 갖춰지는 시기였다. 주일학교 수준에서 독립학교로서 기틀을 갖추고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

제5대 유애나(Mrs. J.S.Nibet) 교장²³⁾의 부임으로 정명여학교는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애나 교장은 정식 교사자격증을 가진 최초의 교장이었는데 학교를 정규학교로 개편하고 고등과(현재의 중학교 과정)를 설치하는 한편 새 교사를 건축하였으며 교육과정을 제정하는 등 학교의 틀과 체제를 갖추어나갔다고 한다. 이렇듯 하나씩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면서 마침내 유애나 교장 부임 1년 뒤인 1911년 정규과정을 모두 마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²⁴⁾

영흥학교의 경우 1907년 교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 미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 교실 2칸의 근대식 학교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이다. 중등과정 15명을 포함한 80여명의 학생들이 1908년부터 새 교사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목포 남학교 즉, 목포영흥중학교 중등과정의 첫 졸업식은 1911년 3월에 거행되었다.²⁵⁾

목포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에서 가르친 교과과정은 1907년 선교부 연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과정 1학년은 성경·국문·한문·습자를 배웠다. 이 4개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배우면서 2학년은 산학(算學)을 추가했고, 3~4학년은 산학·지리를 추가하였다.

중등과정은 성경·역사(한국사, 세계사)·과학·기독교서적·국문(한문)·작문·음악 및 미술을 이수하였다. 이 외에 남학생은 근로사역을 하였고, 여학생들은 다림질과 바느질 등의 과외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남학생들은 일요일 오후 거리에서 전도활동을 하었다고 한다.²⁶⁾

21) 같은 책, 74쪽.

22) 변 부인은 변요한, 즉 프레스턴(Preston) 선교사의 부인이었다.

23) 유애나 교장은 유서백(J.S.Nibet)목사의 부인으로 1906년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24)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72쪽.

25) 송현강, 「한말·일제강점기 목포 영흥·정명학교의 설립과 발전」, 『역사학연구』35, 호남사학회, 2009, 117쪽.

26) G.T.Brown, "Mission to Korea", Minutes of the Thirty-Second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rebysterian Mission in Korea, 1907, 30~31. 여기서는 송현강, 「한말·일제강점기 목포 영흥·정명학교의 설립과 발전」, 『역사학연구』35, 호남사학회, 2009, 117쪽에서 재인용.

제2절 개화기 목포의 사립학교 확대와 쇠퇴

1985년 갑오개혁을 실시한 조선정부는 1897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고, 1905년 을사늑약이후 대한제국의 국력은 급속히 쇠락해갔다. 이를 본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족자강운동·애국계몽운동을 맹렬하게 추진해나갔다.

1906년 대한 자강회가 의무교육을 주장하면서 신교육운동이 확산되었다. 우리 민족은 초등교육에 그치지 않고 적은 수이지만 중등·고등 교육기관도 설립하였다.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신교육운동이 확산되었던 것이다.²⁷⁾ 당시 우리나라에 설립된 학교들을 설립 주체별·지역별로 분류한 것이 <표 5>이다.²⁸⁾

표 5 1910년 지역별·학교종류별 학교 수

지역별	설립주체별	관공립학교	준공립보통학교	사립학교	합계
	한성부	18	1	94	113
	경기	7	12	183	202
	충북	2	4	47	53
	충남	4	3	86	93
	전북	6	2	75	83
	전남	7	7	40	54
	경북	5	4	141	150
	경남	9	4	98	111
	황해	2	7	251	260
	평남	5	6	417	428
	평북	5	5	367	377
	강원	4	5	37	46
	함남	5	9	189	203
	함북	3	4	57	64
	계	82	73	2,082	2,237

27) 최기영, 『애국계몽운동』2 문화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6쪽.

28) 같은 책, 30쪽.

이러한 운동을 바탕으로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사립학교 설립자의 대부분이 전직 관리들이었으며 지역 유지였다. 이들은 이른바 개신유학자로 전통성리학을 수학하였지만, 근대 학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계층이었다. 이와 함께 새롭게 형성된 상인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집단과 선교사 등 종교단체에 관련된 인사들이었다.²⁹⁾

1. 목포의 사립학교 설립

목포도 1897년 개항을 한 이후 10년이 지날 무렵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을 알지 못하면 비웃음을 당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목포는 외국인과 교역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외세가 강력하게 부상하는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노예로서 살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자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각이 있어 목포 시민들은 사립학교를 활발하게 건립하고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가 달재(達才)학교이다. 달재학교는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자신이 가진 재주를 부지런히 익혀야 한다는 뜻으로 세운 학교였다.³⁰⁾ 달재학교를 세운 홍순필(洪淳弼)은 목포항 온금동에 거주하였는데, 자기 집에 목포항 노동자를 대상으로 야학교를 개설하여 온 가족이 노동자 100여 명을 가르쳤다고 한다.³¹⁾

이와 함께 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도 있었다. 목포에는 개항 이후 외국인과 통역을 전담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였다. 목포 개항 이후 내외국인의 통상문제를 전담하는 세관이 개설되면서 영어나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이 세관의 관리였던 이종원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가 ‘일신(日新)학교’였다.³²⁾

이와 같이 대한제국시기에 목포 시민들은 우리 민족의 힘을 강화하기 학교 교육 확대에 힘을 쏟았다. 야학교까지 포함하면 11개에 달하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1900년대 목포에 설립된 민족 사립학교들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³³⁾

29) 김정해, 「1895~1910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역사교육논집』11-1, 역사교육학회, 1987, 349쪽. 여기서는 최기영, 앞의 책, 30쪽에서 재인용.

30) 달재(達才)는 사전적적으로 ‘사물에 통달한 재주나 사람’을 의미한다.

31) 홍영기, 앞의 글, 99쪽.

32) 『대한매일신보』 1909. 03. 03. 「목포의 홍씨」; 전라남도교육청, 앞의 책, 99쪽.

33) 전라남도교육청, 앞의 책, 106쪽.

표 6 1900년대 목포의 사립학교 현황

설립시기	학교명	설립자/운영자	교사진	교육과정	학생 수	비고
1903	영흥학교	개신교	유진벨		60	
1903	정명여학교	개신교	서여사		30	
1905	달재향숙	홍순필		역사, 지지, 한문, 어학 등	70	
1905	흥진학교	전 감리 민영채 등		한문, 국어, 지지, 역사, 신술, 작문, 일어	150	(*일신학교, 1902)
1907	진흥학교	윤상혁 등 11인 / 학감, 장재, 찬성원	부교장 송성인, 교사 윤상혁 등	역사, 지지, 한문, 어학 등		
1907	목포항사립여학교	목포사상회사			52	
1908	영흥야학교	개신교	영어-남궁혁, 일어-조병우			
1908	상업학교	목포사상회사	교장-김중선, 법학-심상철, 한문-김면수	상업과 (주/야반)	60	
1908	보통학교예비과	목포사상회사		예비과 (주/야반)		
1909	노동야학교	목포사상회사와 교육회			300	
1909	야학교	홍순필과 가족			100	

2.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 사립학교령(1908)

일제는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1908년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규제와 탄압에 나섰다. 1908년 8월에 공포된 사립학교령(칙령 제6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³⁴⁾

- ① 사립학교의 설립은 학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명령에 위배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는 폐쇄한다.
- ③ 이미 인가를 받은 학교라 할지라도 본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학부대신의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립학교령의 핵심은 기존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명령’에 위배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는 폐쇄하겠다는 것이었다. 학교 폐쇄에 관한

34) 전라남도교육청, 앞의 책, 165쪽.

규정은 학부령 제10조에 다시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령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 ② 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 ③ 6개월 이상 규정의 수업을 하지 않을 때

1항과 같이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지만, 2항과 같이 ‘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학교를 폐쇄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학부령에 대해 학교들은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계 학교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기독교계 학교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여 무마하고자 하였다. 이 학부령에 대해 반발한 선교사들에 대하여 “귀교를 재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류작성의 수고만 해달라”는 식으로 무마하려 하였다.

실제로 종교계 학교 778건은 무조건 인가해 준 반면, 한국인 사립학교는 1,217건 중 42건만 인가해주었고 나머지 1,175교는 인가해주지 않았다.³⁵⁾ 1910년 5월까지 인가받은 사립학교 총수는 2,250교로 그 중 선교사 학교 823교를 제외하면 모두 1,427교였다. (사립학교령 이후에 설립된 학교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사립학교령 발표되기 이전의 학교 5천여 개 학교 중 4분의 1만 인가를 받았고 3,000여 개교가 폐쇄된 것이었다.

제3절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교육운동과 일제의 억압

1. 일제강점기 이후의 교육 변화, 1차 조선교육령(1911)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우리 민족은 교육의 애국계몽운동, 신교육운동 등 민족 교육의 근대화를 위하여 주체적으로 노력하였다. 민족 교육 근대화를 위한 사립학교는 전국적으로 5천개가 넘었고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 제국은 갑오개혁으로 시작된 근대화 정책으로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고 근대교육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주권을 빼앗은 후 우리나라 학제를 일차적으로 바꾸기 시작

35) 같은 책, 166쪽.

하였다. 1906년 보통학교령을 제정하여 초등교육 기관인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꾸고 4년으로 축소하였다. 중등교육은 보통학교의 보습과에서 끝나거나 고등학교, 고등여학교, 사범학교에서 끝나도록 하였다. 초등교육은 4년, 중등교육은 3년으로 제한한 것이었다. 초·중등 7년의 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을 받으려면 사범학교를 가는 길 뿐이었다.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학교 제도를 정리한 것이 <그림 2>이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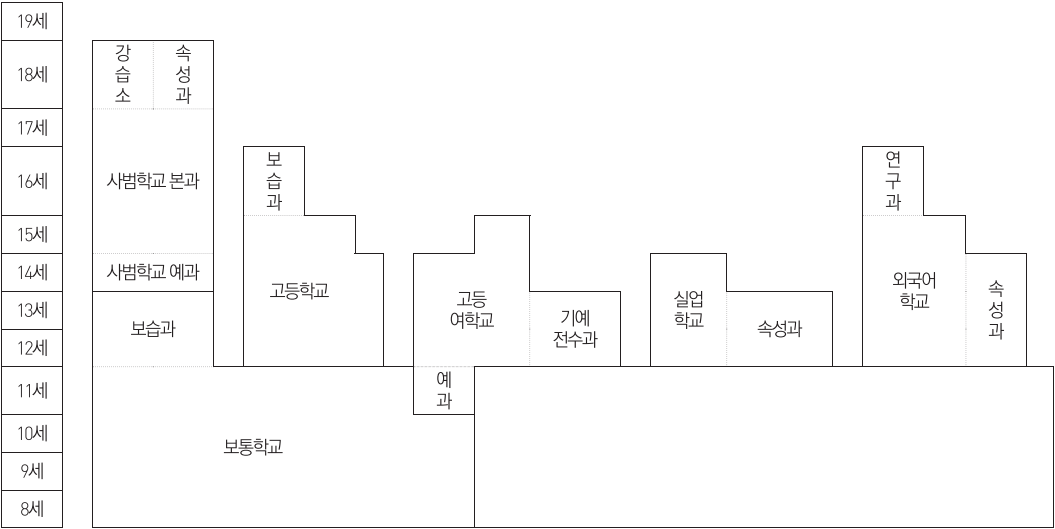


그림 2 일제 강점 직전(1909) 한국 학제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지 1년 지난 1911년 일제는 조선교육령(제1차)을 발표하고 학제를 다시 개편하였다. 초등교육은 보통학교 4년으로 이전과 같았고, 중등교육은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3년으로 단순화 시켰다. 예과 1년, 본과 3년 등 총 4년으로 사범학교를 없애버렸다. 대신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년간 사범과 혹은 교원 속성과를 다니면 보통학교 교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사범교육을 약화시켰다. 전문학교는 학제상 가능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학교를 설립하기까지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1911년 일제가 만든 학제를 정리한 것이 <그림 3>이다.³⁷⁾

36)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일제 초기 학교의 설립과 지역사회-』, 학이시습, 2015, 20쪽 재인용.

37) 수문서관, 『조선헌행법규대전』, 1911; 강명숙, 앞의 책, 30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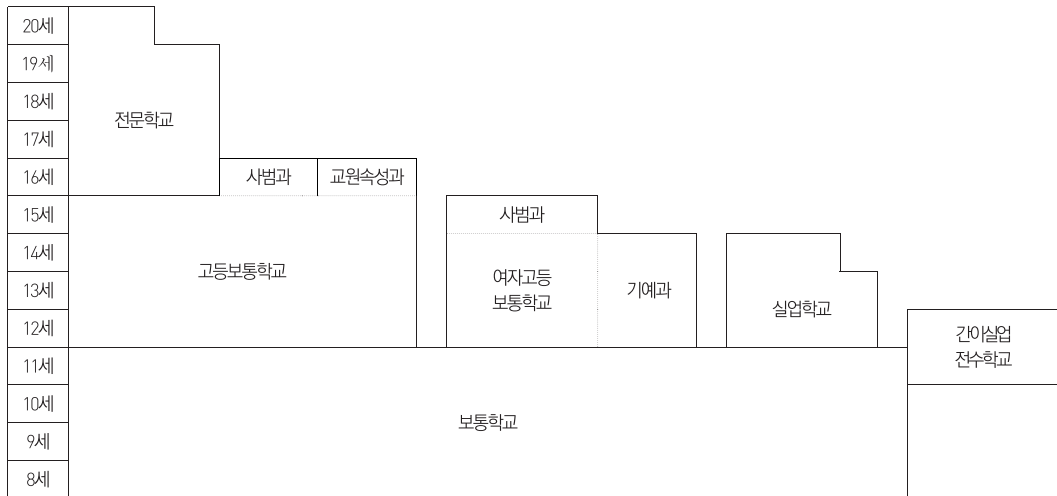


그림 3 일제 강점 직후(1911) 한국 학제

일제가 우리 민족의 교육을 부실화하려는 의도를 역력히 볼 수 있다. 일본의 학제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초등교육은 6년이고, 중등교육은 3년 이상이었다. 문제는 한국에서 초·중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일본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였다. 초·중등 교육기관이 이름이 다르고 수학 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 같은 수준의 학교를 다녀야 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고등보통학교 4년을 다녔더라도 일본의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중등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런 차별은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유화정책을 펴면서 바뀌게 되었다.

2. 민족 교육에 대한 탄압

일제는 1911년 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모든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특히 사학에 대해 심하게 탄압했다. 이것은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14호로 발표된 사립학교규제에 관한 규칙(이하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사립학교 규칙은 1908년에 발표된 사립학교령을 강화한 것이었다. 이 규칙은 일제가 당시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주의계 사립학교와 종교계 사립학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립학교 규칙은 조선인을 교육하는 모든 사립학교가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 사립보통학교에서 사립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사립학교는 모두 포함되었다.

일제가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든 것을 보면 일제가 사립학교 규칙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일제는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³⁸⁾

첫째, 국민교육은 국가적 임무이기 때문에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변칙이다.

둘째, 사립학교 교육을 국법에 의해 행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셋째, 기독교의 교리와 교육방법이 일본 국시와 서로 맞지 않는다.³⁹⁾

이와 같이 일제는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학교를 규제하고자 하였다. 조선교육령에는 모든 사립학교의 설립, 폐쇄, 학교장·교원의 임용 뿐 아니라, 수업연한, 교과서, 교육과정 및 매주수업 시간 수, 학생정원, 학년, 학기, 입학자에 관한 업무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독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학교를 폐쇄하거나 학교장·교원의 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⁰⁾

1915년에는 이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개정 사립학교령’은 일반계 보통 학교와 기술계의 특수학교를 구분하였고, 보통학교는 일반적인 과목 외에 교과과정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성경과목 등 종교교육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의 시설기준도 더욱 강화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만 모이면 학교를 열었던 선교회는 모든 학교를 시설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일제는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쉽게 선교사들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미국 등 외국인 선교사들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인 장치였다.⁴¹⁾

1918년 일제는 서당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였다. 그 동안 통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서당의 경우 일제 강점이후에도 숫자가 줄지 않았고, 민족교육을 활성화하는 장치였는데, 일제는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1918년 2월 일제는 총독부령을 공포하여 서당 개설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서당 교육의 세부적인 과정도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태면 서당은 한문 외에 일어 및 산수를 교수해야 하고, 서당 학동이 30명을 초과하지 말도록 하였다. 또한 서당이 사용하는 서적을 총

38)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교육60년사』상, 2005, 173쪽에서 재인용.

39) 같은 책, 173쪽

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41)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87~88쪽.

독부가 정해준 것들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도록 지정하였다. 비정규교육이었던 서당에서도 민족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던 것이다.⁴²⁾

이와 같은 일제의 사립학교 통제정책에 의해서 사립학교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1910년대에는 한국에 있는 사립보통학교, 사립각종학교의 수가 급속히 줄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사립보통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였다.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면 일제 총독부가 완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제 초기 1912년 자료에 따르면 사립보통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한 학교 수가 96개나 되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그림 4>이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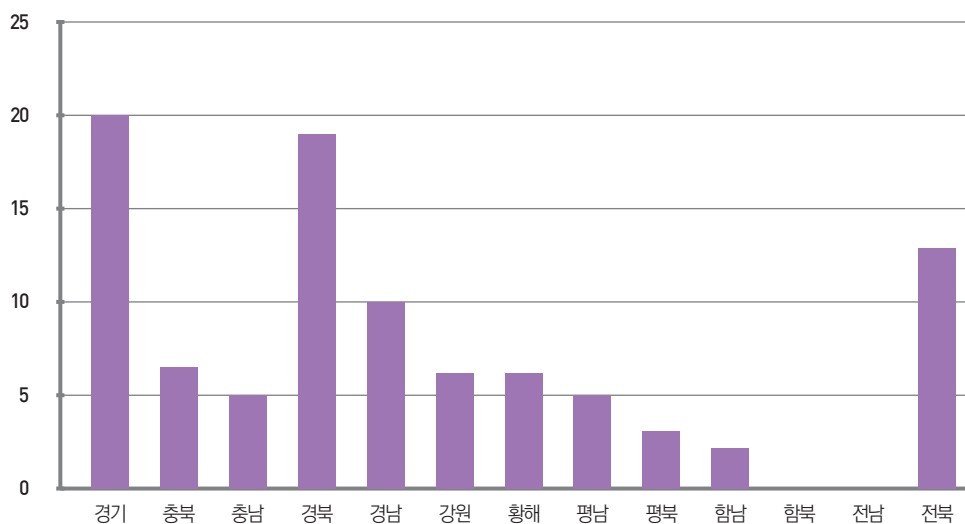


그림 4 일제강점기 하에서 공립으로 변경된 사립 보통학교 수(1912)

이 그림에서 보면 함경북도와 전라남도는 변경된 학교가 없다. 이 지역에서는 공립으로 전환된 사립 보통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립보통학교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립으로 통합되거나 폐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립에서 공립으로 변경되지 않고 공립으로 통합되거나 학교 인가가 폐지된 사립 보통학교도 있었다. 일제 초기 이후에도 1920년대까지 공립으로 통합되거나 폐지된 보통학교 사례가 있었다. 전남지역의 사립상동보통학교를 포함하여 사립울릉보통학교(경남), 사

42) 전남교육청, 『전남교육 60년사』상, 2005, 173쪽.

43) 『조선총독부 월보』 1912. 10. 「신설공립보통학교 상황」 참조. 이 그림은 강명숙, 앞의 책, 39~43쪽의 표를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립삼계보통학교(전북), 사립양명보통학교(경남), 사립 금산보통학교(황해) 등이 공립학교에 흡수·통합되거나 폐교되었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 장성군 내동면에 있었던 사립 장동보통학교는 기부금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1914년 폐교되었다. 사립장동보통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은 주변 서당으로 흩어지고 학교 건물만 공립 장성보통학교로 기부되었다.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당시 사립보통학교가 공립보통학교로 인계되거나 폐교되면 폐교된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들은 통합된 학교나 주변의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립장동보통학교 건물만 공립보통학교로 이전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재산은 면사무소에 기부되었다. 이것 또한 이례적이었다. 당시 폐교의 기본 재산을 면사무소에 기부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폐교 이후 이례적으로 학생들이 서당으로 간 것이나 재산을 면사무소에 기부한 것을 보면 사립장동보통학교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⁴⁴⁾

이와 달리 서당은 일제의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10~1920년에 사립보통학교, 사립 각종학교, 서당 수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 <표 7>이다.⁴⁵⁾

표 7 1910~1920년 전남의 초등 교육 시설 수의 변화

	사립보통학교	사립각종학교	서당
1910	15	27	-
1912	6	15	2,101
1914	5	9	2,248
1916	6	8	2,954
1918	4	5	2,204
1920	3	2	2,482

일제가 한국 내 사립학교들을 축소하고 폐지하면서 민족 교육을 억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서당과 같은 비인가 사립학교들을 통하여 민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목포의 경우 공식 기록에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지만 존재하였던 학교로 목포 중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 목포

44) 강명숙, 앞의 책, 87쪽.

45) 전라남도교육청, 『전남 학교의 역사』I, 2015, 166쪽.

중학원은 목포에서 사업을 하던 시민들이 세운 비인가 학교였는데, 당시 신문 자료에서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목포중학원은 목포 개항 때부터 문옥업(問屋業)에 종사하였던 목포 상인들의 회사였던 목포 사상회사가 세운 학교였다. 문옥(일본어로 돈야)이란 소매상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객주에 해당되는 직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옥업자들은 목포 개항 초기부터 교육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935년 문옥업자들이 목포 사상회사를 창립할 때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을 일부 알 수 있다.⁴⁶⁾

목포사상회사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목포개항 당시 문옥업자(問屋業者)들의 유일한 실업단체로서 오랫동안 동 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육영(育英)을 전력하여 많은 역사를 지어 왔으나 일한합병 당시 동 회사는 역경에서 해산되고 그의 유물로서 사백여 평의 광대한 건물만이 존속하여 있던 만큼 계속하여 30여 년 동안을 육영중학교를 비롯하여 상업학교와 사립학교로 현재 목포문옥조합에서 경영하는 상업전수학원에 이르기까지 교사로 사용하여 오던 바 …….

목포의 문옥업자들은 ‘육영중학교’라 불리는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928년 이 학교를 목포 중학원으로 변경하였다. 이 후 1931년에 다시 목포중학원을 목포상업전수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⁴⁷⁾

이 목포중학원 건물은 민족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종종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당시 민족운동을 활발히 하던 신간회 목포지회는 주로 목포 중학원에서 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목포지회 신간회를 목포중학원에서 개최하였다고 보도하였다.⁴⁸⁾

또한 목포유학생학우회나 목포소년동맹도 목포중학원에서 집회를 하였다. 목포유학생학우회가 목포중학원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참석자가 일제 경찰에 의하여 검거된 후, 이들의 가택이 수색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기사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⁹⁾

전남 목포경찰서에서는 지난 칠일 목포중학원에서 추쇄된 목포 유학생학우회 정기총회에 방청하러 온 청년 림홍수, 박제민, 김영은, 정학현 네 명을 검거하고 다시 오후 10시경에 한석순, 김룡길,

46) 『동아일보』 1935. 12. 05. 「목포 사상회사 주식회사 창립」, 기사의 일부 내용은 지금 표현방식에 맞게 필자가 수정하였음.

47) 『동아일보』 1931. 03. 07. 「중학원 폐지하고 상공학원 설립」.

48) 『동아일보』 1930. 02. 27. 「각단 중요 집회 목포신간대회」.

49) 『조선일보』 1930. 09. 10. 「목포서에 돌연 긴장, 청년 8명을 검거, 가택수색까지 하였다」, 기사의 일부 내용은 지금 표현방식에 맞게 필자가 수정하였음.

김상만, 정적파 등 네 사람을 검거하여 고등계 중서주임(中西主任)의 손에 직접 취조를 받는다는데 내용은 일제 비밀에 부쳐 자세히 알지 못하나 고 김영식 군 추도회 준비 사건과 기타 무슨 관계 사건이 있는 듯하다고 한다.

이 사건의 전모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나 1929~1930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학생항일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29년 광주에서 광주학생항일운동과 관련하여 유학생학우회가 활동을 벌였거나 이와 관련해서 일제의 탄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목포중학원은 비인가 학교로서 민족 교육을 수행할 뿐 아니라 민족 운동 단체들이 활동한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목포중학원뿐 아니라 육영중학교, 목포 상업전수학원 등은 모두 비인가 학교들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민족 교육을 활발히 수행해왔지만 역사에 남지 않은 이 학교들을 역사적으로 발굴하여 그 의의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일제강점기 초·중등학교 현황

일제강점기동안 한국 교육에 대한 일제의 정책은 식민지를 용이하게 통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양성이었다. 일제 교육정책 목적은 자신의 지배에 유리한 최소한의 인력을 양성하여 나머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최대한 착취하는 것이었다.

일제가 한국에서 보통학교를 설립한 것은 한국인을 위한 국민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익히고 일본 통치에 복종하는 최소한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는 최소한의 인력을 양성하는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일제강점기에 목포시에서 일제가 세운 학교 설립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1910년대까지 목포시에 설립한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910년대 유일하게 설립된 학교는 목포공립실과고등여학교였다.⁵⁰⁾

목포공립실과고등여학교를 제외하고 일제강점기 목포시에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이후였다. 초등학교는 1920년대에 1개, 1930년대에 2개, 1940년대 1개가 설립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고작 4개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50) 이 학교는 목포여중의 전신으로 1946년에 목포여자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1921년 이후 중등학교는 1930년대까지 1개교도 설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흥중학교와 정명여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되기까지 하였다. 1920년대 이후 목포시에 설립된 중등학교는 모두 1940년대에 설립된 것이었다. 이때 문태중(1941), 목포중(1942), 목포공립여자상업실수학교(1944) 등 3개교가 설립되었다. 1940년대에 집중적으로 학교를 설립한 것은 학생들을 최대한 모집하여 태평양 전쟁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목포시에 설립된 학교 현황은 <표 8>과 같다.⁵¹⁾

표 8 일제강점기 목포시 초·중·고등학교 설립 현황

1910~1929		1931~1944
초등	- 목포이로초(1923)	- 목포산정초(1933) - 목포서부초(1938) - 목포중앙초(1942)
중학교	- 목포공립실과고등여학교(1917) → 목포공립고등여학교로 개명(1920, 목포여중의 전신) - 목포공립상업학교(1920) ⁵²⁾	※ 영흥소학교 중학부, 정명여자보통학교 폐교(1937) - 목포문태중학교(1941) - 목포중학교(1942) - 목포공립공업중(1944) - 목포공립여자상업실수학교(1944) → 목포정명공업여중(1946. 02.) → 목포향도공업여중(1947. 09.) → 목포여고(1951), 목포중앙여중(1955)

1) 목포공립실과고등여학교(1917): 현재 목포여자중학교의 전신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 중등학교 6개교였다. 1910년대에 설립된 학교는 목포공립실과고등여학교 하나뿐 이었다. 이 학교는 현재의 목포여자중학교이다. 목포여자중학교로 이름을 바꾼 것은 1946년 9월이었다. 1917년 개교 직후 목포고등여학교의 학교장은 목포공립심상소학교의 학교장이 겸임을 하였다. 교실 또한 목포공립심상소학교의 교실을 빌려 사용하다가 1923년 7월 10일에 현재 목포여자중학교의 위치에 새로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고 한다.⁵³⁾

51) 이 표는 학교 홈페이지의 연혁을 활용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52) 목포공립상업학교는 목포상고의 전신으로 1946년에는 목포상업중학교(6년제)가 되었고, 1953년 목포 상업고등학교가 되었다. 목포 상고는 이후에 전남제일고등학교로 바뀌었다가 현재 목상고등학교가 되었다.

53)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71~272쪽.

2) 독립목포상업전수학교(1920): 현재 목상 고등학교의 전신

일제강점기에 두 번째로 설립된 학교가 독립목포상업전수학교 즉, 이후의 목포상업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학한 학교로 유명하다. 목포에 중등 수준의 학교가 필요했던 것은 목포항이 개항된 후 초등학교 졸업생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중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목포에는 남학생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진학을 하려면 서울이나 멀리 일본까지 유학을 해야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웬만한 부잣집 아니고는 유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목포에 중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강해졌다.

1920년 3월 목포부 학교 조합에서는 이러한 필요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등 실업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3년 수업연한의 갑종 상업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 이름은 독립목포상업전수학교로 하고 1920년 6월 1일에 목포 공회당에서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학생 수를 보면 일본인 학생 21명, 한국인 학생 21명으로 총 42명이었다.⁵⁴⁾

이 학교는 1922년 5년제 목포 공립상업학교로 개편되었다. 학생은 각 학년별로 한국인 20명 일본인 30명의 비율로 모집하였다. 교과목은 한문, 역사, 일어, 지리, 수학, 음악, 체조, 부기, 주산, 상업 실천, 상업영어, 상업 미술 등이었다. 1933년부터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같은 수로 모집하였는데, 학교 성적의 상위권은 모두 우리나라 학생들이 차지하였다고 한다. 목포공립상업학교는 1944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목포공립공업중학교와 병합되어 목포공립상공업학교가 되었다가 해방직후인 1946년에 6년제 목포상업중학교로 복귀하였다.⁵⁵⁾

목포상업중학교는 해방 이후에 중·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중학교는 1951년 목포제일중학교로 분리되었고, 고등학교는 1953년 목포상업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⁵⁶⁾

3) 전쟁 말기에 설립된 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세워졌다.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54) 같은 책, 271쪽.

55) 목포 공립 공업학교는 1927년 송정국민학교로 개교한 후에, 이듬해인 1928년 송정공립공업실수학교로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1941년 송정공립직업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가 1944년에 목포공립상업학교와 합병이 되면서 목포로 이전하였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에 목포공업중학교로 분리되었다가 1950년 목포공립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56) 목상고등학교총동문회, 『목상고의 발자취』, 2015, 12쪽.

위한 방편으로 학교 교육을 급속도로 확대시켰다. 1940년대에 초·중등학교가 갑자기 늘어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1940년대 목포에 설립된 학교는 주로 중등학교로 문태중, 목포중학교, 목포여자공립실수학교, 목포공업중학교가 있었다.

문태중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공립이었다. 목포중학교가 이 때 설립된 것을 보면 이전에 목포시민들이 공립중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노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20년대 목포 시민들이 공립중등학교를 목포에 설립하고자 노력했지만 일제의 억압 때문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다. 일제의 필요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자 설립이 그토록 어렵던 공립중등학교를 불과 2년 사이에 일제는 3개나 설립하였던 것이다.

목포중학교는 이후에 목포고등학교가 되었고, 목포여자공립실수학교는 목포여고가 되었다. 목포공업중학교는 목포공업고등학교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4. 목포 시민의 민족교육운동

1) 1920년대 목포 공립고등보통학교 설립 운동

- 전개 과정과 좌절 요인 분석 (23개 지역 설립운동 중 7개 지역 성공)

1897년 개항 이후 목포에 근대적 교육기관 특히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운동이 지속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목포에는 공립 중등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는 중등교육기관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이었다.

고석규의 연구에 따르면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과 함께 타올랐던 학교 설립운동은 1920년을 경계로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⁵⁷⁾ 3·1운동이 불씨가 된 것이다. 학교 설립운동은 민족주의자들의 문화운동과 이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식산흥업과 함께 애국계몽운동의 두 축을 이루고 있었다. 1920년 이후 학교 설립운동은 민족주의자들의 문화운동과 함께 다시 번져나갔다.⁵⁸⁾

민족문화운동과 그 뜻을 같이 하는 학교 설립운동이 불타올랐지만 일제는 이를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다. 일제 총독부는 1921년 10월 1개 도에 1개의 고등보통학교(이하 고보)만을 설치한다는 고등보통학교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광주에서는 1920년 5월 이미 사립 고등보통학교가 설립·운영되

57)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유지(有志)'와 목포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기대와 현실의 간격-」, 『한국사연구』109, 한국사연구회, 2000, 153~158쪽.

58) 같은 논문, 156쪽.

고 있었기 때문에 목포로서는 불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 총독부는 사립광주고보를 관립으로 변경할 계획을 시사하였고, 11월에는 이를 다시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⁵⁹⁾

1922년 1월에는 전국 4개 지역, 즉 광주를 비롯하여 함경북도 경성, 황해도 해주, 경상남도에 각각 고보를 설치하기로 예산을 배정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에서 중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목포 중학교 설립 기성회 위원 중 고근, 촌상, 김상섭 등 3명이 전라남도 당국에 목포 중학교 설립을 진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일제 총독부는 내심 광주의 사립고보를 공립고보로 전환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강점기 내내 사립 교육기관을 말살하거나 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는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였다. 일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가 일제의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민족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최대한 억제하고 공립학교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었다. 공립학교 또한 최대한 억제해서 한국 민족이 교육을 더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려했다. 이런 점에서 사립 중등학교를 공립 중등학교로 전환하고 다른 공립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립학교도 없애면서 공립 중등학교를 1개로 제한할 수 있는 1석 2조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총독부는 이런 공립고보설치계획과 함께 1922년 1월 사립고보인가방침을 발표하면서 사립고보 설치운동도 가로막고 나섰다. 말이 인가방침이지 실제로는 학교 설립 탄압 정책이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⁶⁰⁾

형식상으로는 다소 진보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실제로는 동화주의 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 중등교육에서 시민들이 사립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총독부에 청원하지만, 총독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불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결국 목포공립고보를 설립하려는 목포 시민들의 노력은 좌절되었다. 공립고보뿐 아니라 사립고보를 설립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 학교 교육을 전쟁에 이용하려는 일제의 정책에 따라 1942년 목포 공립 중학교를 설립될 때까지 목포 시민의 힘으로 목포 공립 고보를 설

59) 고석규, 앞의 논문, 156~157쪽.

60) 『동아일보』 1922. 07. 10. 「교육에 대한 당국의 불성의」. 여기서 고석규, 앞의 논문, 158쪽에서 재인용하였고, 내용을 현대적 표현으로 필자가 재서술하였음.

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1920년대 우리 민족이 전국에서 고등보통학교 설립 운동 상황과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9>이다.⁶¹⁾

표 9 1920년대 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상황

지역	학교명칭	연도	주체	설립학교(연도)
통영		1920	중학기성회	실패
상주	상주중학교	1920	중학교기성회	실패
부산부	교남민립제일고등보통학교	1921	김병규, 안희제, 김기태	관립고등보통학교(1922)
황해도	황해도 중학기성회 운동	1921	황해도 중학 연합 기성회	실패
대구	사립 교남중학교	1921	이우진, 장길상, 장직상, 장택상	실패
홍성	충남사립고등보통학교	1922	충남고보 연합기성회	공립공주고등보통학교(1922)
강릉	강릉 고등보통학교	1922		춘천 고등보통학교 (1922)
진주	진주사립일신 고등보통학교	1922	허만정, 진주청년회, 기독교청년회, 노동공제회	진주고등보통학교 (1925) 진주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1925)
고창	고창사립고등보통학교	1922	천장옥, 홍종철	고창사립고등보통학교(1922)
영변	영변송덕중학교	1922	영변중학기성회	실패
안성	안성고등보통학교	1922	안성교육회	실패
안동	안동고등보통학교	1922	안동고등보통학교 기성회	실패
영광	영광중학교	1923	영광중학교 기성회	실패
청주	청주고등보통학교	1923	고등보통학교 창립기성회	실패
동래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1923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성회	실패
성진	고등보통학교	1923	중학기성회	실패
북청	북청고등보통학교	1924	고등보통학교 기성회	실패
서울	종로고등보통학교	1924	중앙청년회관	실패
전주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	1925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 기성회	공립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1926)
김해	김해사립고등보통학교	1926	김해농업계	실패
영일	포항고등보통학교	1926	포항고보 기성회	실패
목포	목포고등보통학교	1927	목포중학 기성회	실패
김천	김천고등보통학교	1928	김천고등보통학교 기성회	김천고등보통학교(1931)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전국 23개 지역에서 조직을 결성하고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학교를 설립한 곳은 7개 지역(8개 학교)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이 공립고

61) 이문포, 「일제하 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1999, 64~65쪽에서 필자가 표 일부를 수정하였음.

등보통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일제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2) 일제 말 한국교육에 대한 일제의 억압과 저항

일제는 강점을 실행하기 전 통감부시기부터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를 억압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끝난 후 한국인에 대한 유화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억압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테면 1922년 실시한 2차 조선교육령의 경우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주요 골자는 내선일체라는 명목 하에 한국의 언어·문화와 종교를 말살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 일본이 침략전쟁을 준비하면서 일제에 대한 굴종을 강요하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사참배 강요였다. 일제는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선교를 목표로 한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신사참배를 허용하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애초 기독교 선교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종교의 특성을 들어 신사참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1936년 10월부터는 무장한 경찰들이 교내에까지 드나들며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럴수록 학교 입장도 더욱 완강했다. 1936년 11월, 미국 남장로교 소속인 본교를 비롯한 광주수피아여학교, 송일학교, 목포영흥학교, 순천매산학교, 매산여학교 등 6개 학교는 이듬해 3월 졸업식을 마치고 학교를 폐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⁶²⁾

그 이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중일전쟁을 도발한 다음 해인 1938년 일제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이 교육령의 목적은 한국인들이 일제에 대해 충성하도록 더욱 강하게 강제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황민화정책이었다. 한국인들을 일본왕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1943년부터는 교육 임시조치령에 의하여 모든 사립학교를 거의 폐쇄하고 이를 전쟁요원 양성소로 전환시켜버렸다. 즉,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혜화전문학교 및 명륜 고등학교가 폐쇄되고, 연희전문학교 자리에는 공업경제전문학교를, 보성전문학교자리에 척식 경제전문학교를 세우고, 이화전문학교는 농촌지도자 양성소로 바꾸어 버렸다.⁶³⁾

62) 목포청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129~130쪽.

63) 전라남도교육청, 앞의 책, 201쪽.

제4절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목포 교육의 특징

지금까지 목포 개항이후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목포교육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근대교육은 개항 이후 외국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를 비롯하여 1900년대까지 우리 민족이 설립한 학교들을 보면 주체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 민족은 자발적으로 사립학교 설립운동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5천개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점을 볼 때 우리 민족의 교육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목포의 교육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개항 이후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항구 도시가 된 목포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남에게 미룰 일이 아닌 우리 민족의 일이었기 때문에 목포 시민이 학교 설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목포 시민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교육 구국운동은 일제에 의하여 억압을 받게 되었다. 일제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우리 민족의 사립학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일제 강점 후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과 함께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하며 일제가 자의적으로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더욱 강하게 탄압하였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교육목적은 사립학교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공교육만을 실시하여 일제 통치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사립학교는 한국 민족의식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탄압하였다. 공교육은 초등수준에서 최소의 한국인이 최소의 기간만 배우도록 하였다. 일제는 일본 본토의 학제와 한국의 학제를 다르게 만들어 서로 교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를테면 일본 본토의 초등학교는 소학교인데 한국의 초등학교는 보통학교로 이름을 다르게 하였다. 일본 본토의 소학교보다 한국의 보통학교가 더 단기간만 운영하도록 수업연한도 축소하였다. 중등의 경우 일본에 중학교가 있다면 한국에는 보통학교에 부설로 설치하는 고등과 형태로 두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보통학교라고 이름을 지어 차별하였다.

이러한 차별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이루어졌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하는 내선일체를 표방하여 겉으로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조선말살 정책을 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일본에 굴종하도록 하였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학교는 폐교시켰다.

목포 최초이자 전남 최초의 중학교인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는 일본에 굴종하기 보다는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많은 학교가 일제의 억압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학교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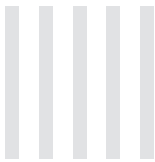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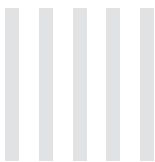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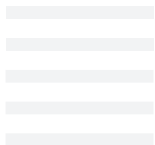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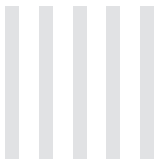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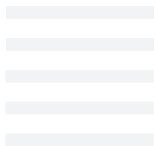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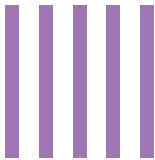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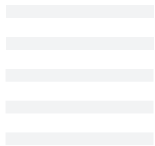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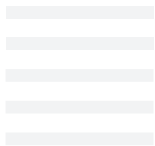
쇄라는 형태로 일제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더라도 대단한 저항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목포 공립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지는 못했지만 목포시민들은 목포상업학교, 목포공업학교 등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에 앞장섰다. 목포 상업학교는 항구 목포의 교역 활동을 이끌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다.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목포 교육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 민족의 교육 노력과 일제의 억압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았을 때 새삼 일제 식민지가 한국 교육의 근대화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일제가 식민지기 교육을 통하여 한국 교육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항 이후 우리 민족이 근대적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노력을 억압하였지만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다. 억압되어 있던 우리 민족의 교육적 열망은 해방의 새날을 기다리며 그 때 우리 민족 교육을 펼치고자 하였다.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1절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학교 교육의 팽창과 특징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2절 도시중심의 근대화 정책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학교 교육의 변화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3절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의 특징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4절 교육자치제 실시와 학교 교육 변화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5절 목포 현대 교육의 특징과 과제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2장 해방 이후 목포 현대 교육의 특징

한국을 불법적으로 통치하던 일제가 패망한 이후 우리는 근대 한국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목포에서는 자주적 근대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근대적 사립학교들이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폐교되었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 강요 때문에 기존의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마저 일제에 의해 폐교되는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해방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오랜 염원이었던 공립고등보통학교, 즉 공립 중등학교 설립도 일제의 억압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민족 독립과 함께 목포는 민족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제1절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학교 교육의 팽창과 특징

1. 해방 후 초등교육의 증가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이 급속도로 증가하던 시기였다. 초등교육이 급증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억눌렸던 교육열이 분출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정부가 초등학교 의무교육 정책을 실시하며 초등교육을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정책을 실시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표 1 전남지역 시군별·설립시기별 학교 수 및 인구 십만 명당 초등학교 수 현황

시군	설립된 학교 수 (개)					인구 10만 명당 학교 수
	1945년이전	1945~1947	1948~1950	1951~1960	합계	
광주시	27	2	1	8	38	9.3
광양시	15	3	2	1	21	24.1
나주시	24	8	3	2	37	16.6

시군	설립된 학교 수 (개)					인구 10만 명당 학교 수
	1945년이전	1945~1947	1948~1950	1951~1960	합계	
목포시	6	1	1	6	14	10.8
순천시	21	6	0	8	35	16.8
여수시	30	11	14	14	69	30.2
강진군	16	1	2	1	20	17.3
고흥군	35	7	2	7	51	24.4
곡성군	17	5	1	2	25	24.8
구례군	14	3	0	1	18	25.3
담양군	20	0	2	0	22	18.8
무안군	17	3	0	3	23	17.7
보성군	19	4	0	5	28	17.2
신안군	21	12	11	29	73	44.5
영광군	23	1	1	1	26	18.2
영암군	20	3	2	1	26	21.0
완도군	25	3	5	38	71	56.3
장성군	20	1	1	3	25	21.1
장흥군	19	6	1	3	29	22.9
진도군	20	6	7	4	37	39.0
함평군	17	3	1	2	23	18.1
해남군	29	7	6	3	45	22.0
화순군	19	4	2	7	32	23.8
계	474	100	65	149	788	22.2

출전: 전라남도교육청, 『전남학교의 역사』, 2015, 330쪽. 여기서는 표 일부를 필자가 수정하였음.

전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해방 이전까지 설립된 초등학교는 474개였는데 해방 직후 5년 동안 무려 165개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1950년대 10년 동안 전남에 설립된 초등학교 149개보다 많은 것이었다.

전남 각 지역의 초등학교가 지역 인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설립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 10만 명당 초등학교 수를 산출하여 보았다.(<표 1>, <그림1> 참조) 인구 10만 명당 초등학교수가 많은 지역은 완도군, 신안군, 진도군 등 섬 지역이었다. 이것은 당시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국민들이 초등교육을 받게 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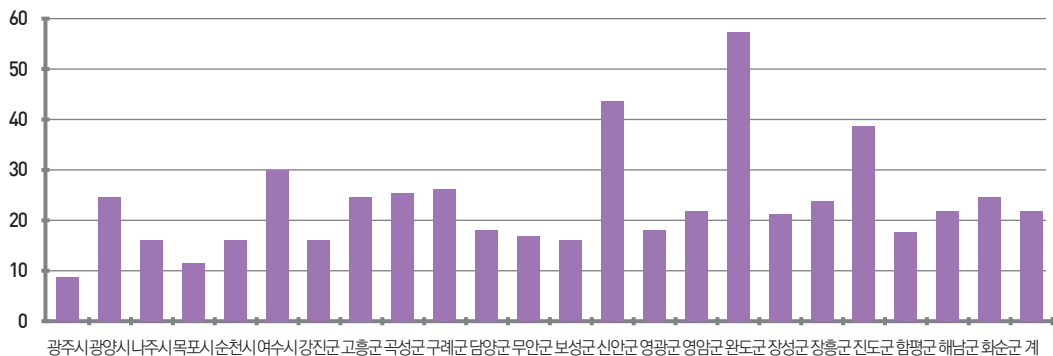


그림 1 1960년 현재 전남 시군별 인구 십만 명당 초등학교 수 비교

이에 비해 광주와 목포는 인구 10만 명당 초등학교수가 각각 9.3개, 10.8개로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당시 전남지역의 대도시였던 광주와 목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학교 수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 인구 10만 명당 초등학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전남의 중학교는 해방직전까지 국공립 27개교, 사립이 8개교로 총 35개교가 있었다. 해방이후 1940년대 말까지 54개로 5년 만에 19개교가 증가하였다. 1950년대에는 학교 수 증가속도가 더 빨라져서 1960년에는 113개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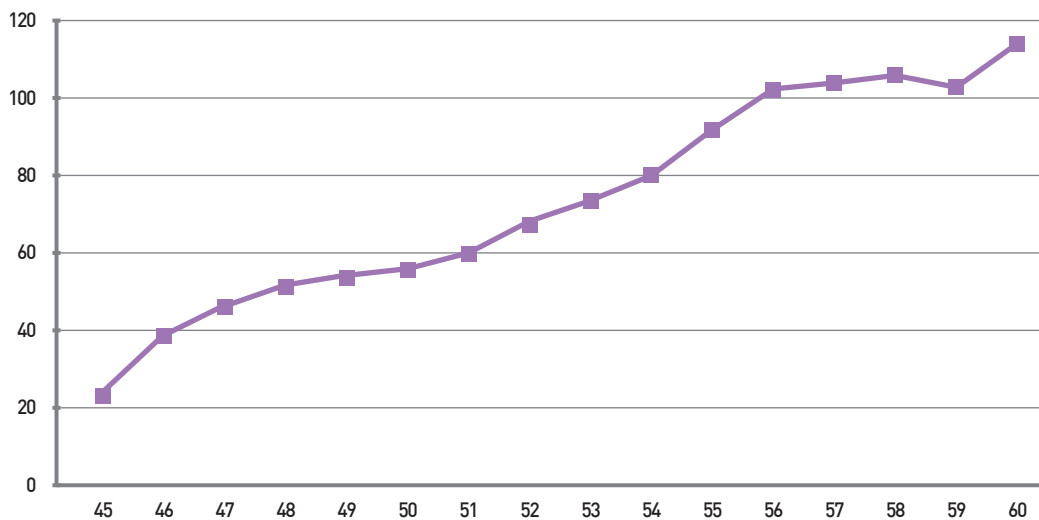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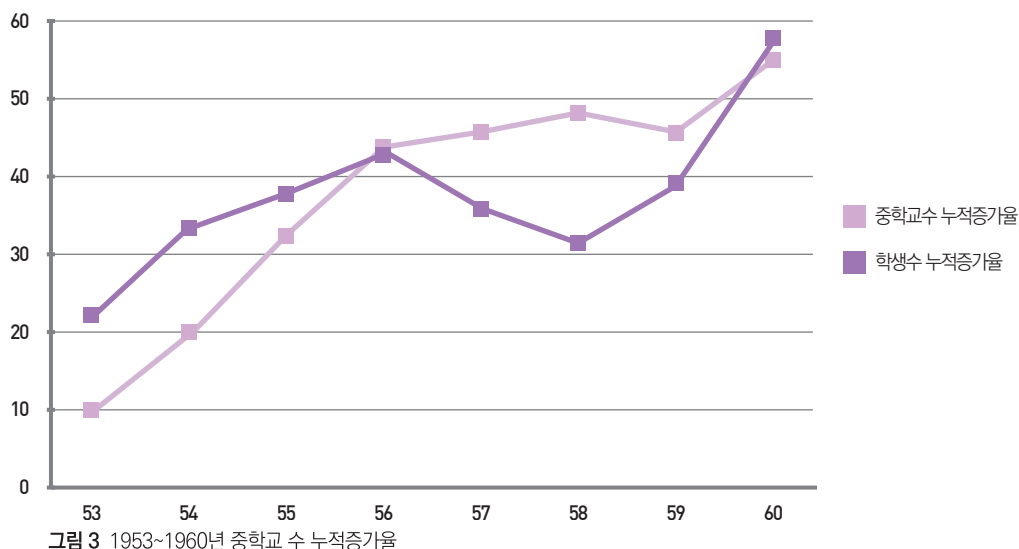
그림 2 해방 이후 1960년까지 전남 중등학교 수 변화

01) 1950년과 1955년 중등학교 수가 없어서 각각 앞뒤 연도의 평균치를 넣어 그래프를 그렸음.

이 그래프를 보면 해방 직후와 1960년에 전남의 중등학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1950년대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해방 직후에 학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중등학교 설립이 억압을 받아오다가 일제가 패망한 후 풀렸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중등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일제에 의해 좌절되다가 해방이 되면서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950년대 중등학교 수가 급증한 것은 초등학교가 급증하고 초등학교 졸업자가 급증하면서 중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50년대 중학교수와 중학생 수의 누적 증가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⁰²⁾ 이 그래프를 보면 1950년대 전반기에 중학교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실제 중학교 수가 1950년 54개였는데, 불과 6년 후인 1956년에는 102개로 늘어났다. 거의 2배 증가한 셈이다. 이때는 중학생 수뿐 아니라 누적증가율도 증가했다.

1950년대 중반 중학생 수 누적증가율이 급속하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은 한국전쟁 시 학생 수 변화와 중고등학교가 분리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3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학생들이 늦게 졸업해서 1959년부터 졸업생수가 늘어났을 수 있다. 6·25전쟁기간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들이 실제로 초등학교를 더 다녔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중·고등학교 분리는 대부분 1950년대 전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950년대 후반에 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02) 이 그래프는 목포교육통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2. 해방 후 목포시 거주 인구의 변화

돌이켜보면 목포는 1897년 개항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목포 인구는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마다 2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1915년 12,782명이었던 인구가 1925년에는 25,762명, 1935년에는 59,046명이 되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목포가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하였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인구가 10만 3천여 명으로 늘었다가 1947년 갑자기 줄어들었던 것은 해방 이후 외지에 있던 한국인들이 목포항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목포 인구는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그림 4>이다.⁰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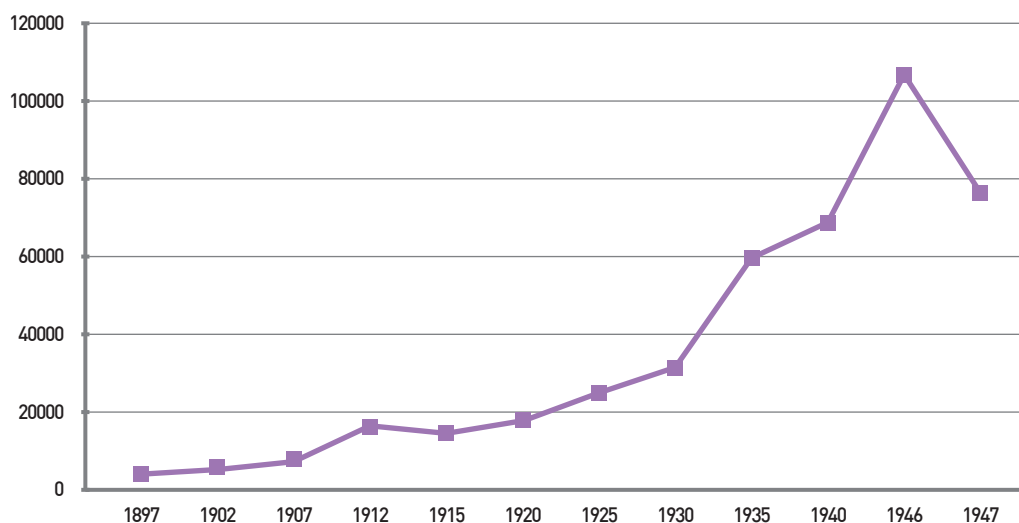


그림 4 목포 개항 이후부터 해방 직후까지 목포시 거주 인구의 변화

이러한 인구 증가에 비해 학교 수의 증가는 크지 않았다. 해방 직후 목포에는 초등학교가 북교초, 이로초, 산정초, 서부초, 중앙초 등 5개교가 있었다. 중등학교는 한 때 영흥소학교 중학부, 정명고등여학교, 목포공립고등여학교, 목포공립상업학교 등 4개교가 있다가 영흥소학교 중학부와 정명고등여학교가 폐교되고, 일제 패망 직전인 1940년대에 목포문태중학교, 목포 중학교, 목포공립공업중학교,

03) 이 그림은 이종화 외, 『목포·목포 사람들』, 경인문화사, 2004, 43~44쪽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목포공립여자상업실수학교 등 4개교가 신설되어 해방 당시에는 6개교가 있었다. 그나마 1940년대 일제 패망 직전에 중학교 4개교를 신설해서 중등학교가 6개 학교가 되었다. 1940년 이전에는 중등학교가 목포상고와 공고 2개교 밖에 없었다. 해방 직전 목포시 학교의 설립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해방 이전 목포시 초·중·고등학교 설립 현황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초등	- 목포 공립보통학교 - 목포 공립 심상소학교	- 목포 이로초(1923) - 목포 산정초(1933) - 목포 서부초(1938) - 목포 중앙초(1942)
		- 목포공립 실과 고등여학교(1917) → 목포 공립 고등여학교로 개명(1920, 목포여중의 전신) - 목포공립상업학교(1920) ⁰⁴⁾
중학교	- 목포 영흥학교 중학부 - 목포 정명여학교 중학부	※ 영흥소학교 중학부, 정명여자보통학교 폐교(1937) - 목포 문태 중학교(1941) - 목포 중학교(1942) - 목포 공립 공업중(1944) - 목포공립여자상업실수학교(1944) → 목포정명공립여중(1946. 02.) → 목포향도공립여중(1947. 09.) → 목포여고(1951), 목포중앙여중(1955)

해방 직후 5년보다는 1950년대 전반기에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1940년대 후반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등학교 2개교가 설립되었는데, 1950년대 전반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등학교 5개교가 설립되었다. 6·25전쟁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5년 지난 다음부터 많은 학교를 설립 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폐교되었던 정명여자중학교와 영흥중학교도 다시 개교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10년 동안 초등학교 8개교, 중등학교 7개교가 설립되었다. 일제하와 비교해보면 해방 이후 10년 동안 설립 된 학교가 일제하 35년간 설립된 학교보다 많았던 것이다. 해방 직후 목포에 설립된 학교를 수준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목포시 초·중·고등학교 설립 현황

1945~1949년		1950년대
초등	- 임성초(1945) - 유달초(1945)	- 충무초(1951) - 놀도(율도)초(1952) - 달리초(1953) - 목포동초(1954) - 목포사범학교부속초(1957) → 목포동국민학교(1962) → 광주교대 목포부속국민학교(1978) - 목포 달성초(1959)

04) 목포 공립상업학교는 목포상고의 전신으로 1946년에는 목포상업중학교(6년제)가 되었고, 1953년 목포 상업고등학교가 되었다. 목포 상고는 이후에 전남제일고등학교로 바뀌었다가 현재 목상고등학교가 되었다.

1945~1949년		1950년대
중 학 교	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 동광중(1945) - 목포 정명여중 재개교(1947) - 목포 제일중(1949)
	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제이중(1951) - 목포영흥중 복교(1952) - 목포덕인중(1954) - 목포중앙여중(1955, 목포)
고 등 학 교	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 여자중학교로 개명(1946, 구 목포공립고등여학교) - 목포 공립상업중학교으로 개명(1946) - 목포정명공립여자중학교(1946. 02) → 구 목포공립여자상업실수학교(이후 목포항도공립여자중학교로 개명, 1947. 09.) 나중에 목포 중앙여중과 목포여고로 분리됨.⁰⁵⁾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공업고(중학교에서 승격) - 목포고(1950, 중학교에서 승격) - 목포문태고(1951, 중학교와 분리) - 목포동광고(1951, 중학교와 분리) - 목포여고(1951, 목포 항도공립여자중학교에서 승격) - 목포상고(1953, 목포상업중학교에서 승격) - 목포영흥고(1954, 중학교와 분리)

출전: 목포시, 『목포시사 1980~1994』, 1997 및 목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mped.jne.go.kr>)의 학교 현황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이 표에서 특이한 사항은 목포여고의 전신인 목포공립여자실수학교(이하 목포여실)가 일제 패망 직전에 설립된 이후 학교 이름을 여러 번 바꾸었다는 것이다. 목포여실은 1944년 3월 3년제 실업학교로 처음 설립인가를 받은 직후 1944년 6월 목포공립고등여학교(목포여중의 전신)에서 개교하였다. 목포공립고등여학교와 학교 건물을 같이 쓴 것이다. 불과 한 달 후인 1944년 7월 목포여실은, 일제강점기에 폐교되었던 사립 정명여학교 기숙사로 교사를 이전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에 목포여실은 이름을 목포정명공립여자중학교로 바꾸어 6년제 인문중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이때 일제강점기에 폐교되었던 사립 정명여학교가 재개교하여 목포 여실은 다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으로 목포여실은 불과 1년 후인 1947년 9월에 학교이름을 목포항도공립여자중학교로 바꾸게 되었다. 개교한 지 3년여 만에 이름을 2번이나 바꾼 것이다.

1951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목포항도여중은 목포여자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게 되었고, 목포항도공립여자중학교의 중학교 과정은 1955년 목포 중앙여자중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목포여고와 교사를 같이 쓰던 목포중앙여중은 1970년에 분리되어 새로운 교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 목포에 있는 목포항도여중은 1979년 새로 설립된 학교이다. 목포항도여중은 해방 직후의 목포항도공립여자중학교와 이름은 거의 같지만 전혀 다른 학교였다.

05) 1946년에 개명한 목포항도공립여자중학교는 이후 목포 중앙여중, 목포여자고등학교로 분리된다. 현재 같은 이름의 목포항도공립여자중학교는 1979년에 새로 설립된 다른 학교이다.

3. 학제의 확정과 중학교·고등학교 분리

1950년대 6-3-3-4 학제가 확정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기 시작하여, 지금과 비슷한 학교 체제를 띄게 되었다. 학제가 정부 수립직후부터 바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해방직후 미군정기부터 학제는 6-3-3-4제로 시행되었지만 정부수립 후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바로 확정하지 못했다.

문제는 중등 6년을 3-3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중등을 6년제로 하자는 주장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중등을 나눌 경우 중학교를 3년 고등학교를 3년으로 나누자는 안과, 중학교를 4년 고등학교를 2년으로 나누자는 안이 있었다.

결국 중등학교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나누자는 안이 1950년대 들어서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6년제 중학교들이 1950년대에 들어서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분리한 학교는 목포 고등학교, 문태 고등학교, 동광 고등학교, 목포여자 고등학교, 목포 상업 고등학교, 목포 영흥 중학교 등이 있었다. 목포 고등학교는 목포 중학교에서 분리·개교하였고, 목포 상고는 목포 상업중학교에서 승격하여 개교하였다.

4. 목포 최초의 교원양성기관, 목포 사범학교

고등교육에서는 목포대학교의 원형인 목포 사범학교가 1946년에 설립되었고, 목포 해양대학의 전신인 목포 해양 전문대학은 1950년에 설립되었다. 사범학교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1963년 교육대학이 될 때까지 중등학교에 해당하였다. 해방 직후 초등학생이 급증한 반면, 일본인 교원들이 차지하던 교원 수 만큼 교원이 부족하여 교원 부족문제는 심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전남지역에는 1938년에 설립된 광주사범학교 외에 목포사범학교와 순천사범학교가 1946년에 신설되었다.

교원이 되고 싶다는 것은 해방 이전이나 해방 이후나 마찬가지였다. 일제하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직업으로 경찰, 공무원 그리고 교원이라고 할 정도로 교원은 성공 직업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교원이 되려는 경쟁은 치열하였다. 해방 직후 광주·전남지역 사범학교 입학 경쟁률을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1947년 당시 사범학교 입학 경쟁률을 보면 평균 3:1 수준이었고, 그 중에서도 목포는 6.1: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표 4 1947년 광주·전남지역 사범학교 신입생 현황

학교명	정원	지원자	경쟁률
광주사범	200	1,060	5.3
목포사범	300	1,833	6.1
순천사범	200	845	4.2
합계	1,450	4,600	3.2

출전: 전라남도교육청, 『전남학교의 역사』, 2015, 301쪽.

5. 폐교된 학교의 복교 과정(정명여고)

일제강점기에 폐교된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는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직후 바로 학교를 개교할 수가 없었다. 해방 직후 1945년 말에 광주에서는 수피아학교와 숭일학교가 복교했지만, 정명여학교는 2년여 공백기가 있었다.

그 이유는 목포지역의 사회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정명학교사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당시 목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난히 불안한 시국이 계속되는 탓이었다. 약 9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주민구가 적고 유동인구가 많은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정치적 여건까지 겹쳐 안정을 기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것이다.”⁰⁶⁾

정명여학교의 경우는 개교하는 데 2가지 문제가 있었다. 먼저 학교 건물을 다른 학교가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아닌 목포 여고의 전신인 목포공립여자상업실수여자학교(이하 목포여실)가 정명여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정명여학교가 폐교된 이후 학교 건물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943년 목포여실이 정명여학교 건물에서 개교를 하였고, 해방이후까지 정명학교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⁰⁷⁾ 1946년 목포여실은 아예 이름을 목포정명공립여자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정명여학교로서는 개교가 더욱 어려워 보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명여학교를 재개교할 주체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학교 재산의 주인에 해당하는 미 선교사들도 아직 재입국하지 않은 처지였고 해방 이전 일본인들에게 빼앗겼던 학교 재산 관리는 물론 복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뚜렷한 주체가 없었다.⁰⁸⁾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를 다시 개교하는 데 기여한 인물은 이남규와 최섭이었다. 이들은 해방 직후 목포시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잠시 해방 직후 우리 사회가 어떤

06)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목포 정명여자 중·고등학교 100년사』, 2003, 148쪽.

07) 같은 책, 148~149쪽.

08) 같은 책, 148~149쪽.

상황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한국에서 통치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만 미군은 3주가 지난 1945년 9월 초에 한국에 도착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도착하기도 전에 패망한 국가의 정부가 전쟁 패배를 선포한 것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시기에 일종의 권력의 공백이 나타난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군사정부를 수립하기 전까지 시기를 ‘혼란기’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도 통치를 하지 못하고 미군도 정부를 세우지 못했으니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혼란이 있었다는 추론이었다.

이러한 추론은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 민족은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임시 통치기구인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질서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일제 총독부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는 절차를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정부를 수립하려는 인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대해 미국이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점이었다. 미국은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에 북한과 대립하며 안정적으로 미국과 협조하는 친미반공 정부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인민위원회는 주체적 한국 정부 건설과 남북통일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민위원회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운형과 같은 사람들은 미군정기 한국 정부 운영에서 배제되었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했던 관료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군정기 국가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당시 목포정명여자학교와 영흥학교의 복교를 주도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목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남규 목사였다. 미군정이 목포에 진주하자 미군은 이남규 목사를 배제하고 양동교회 장로였던 최섭 장로를 목포시장에 지명하였다. 최섭 장로는 영흥학교 출신으로 미국 남장로선교회의 장학금으로 세브란스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프렌치기념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한 바 있어 선교사를 포함한 미국인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정명과 영흥의 복교를 주도하고 1953년부터 치열해지는 기독교 분쟁의 대표 행사를 하러 각각 나서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해방기의 목포 건설에 헌신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었다.⁰⁹⁾

이러던 중 1947년 9월 23일 복교와 동시에 최섭 장로가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복교 초기에는 정식 학교라기보다는 학원 성격이 강했다. ‘학술강습회 목포정명중학원’이라는 어정쩡한 학교 명칭이 말해주듯 정부로부터 일반 공립학교와 같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50년 3월 30일, 본교는 마침내 문교부로부터 정식으로 학교 재설립 인가를 받아 목포 정명여자중학교가 되었다.¹⁰⁾

09)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149쪽.

10) 같은 책, 154쪽

제2절 도시중심의 근대화 정책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학교 교육의 변화

-전국 인구 팽창과 대비되는 농촌인구 감소 현상(목포인구 추이)

1. 목포의 인구변화와 학생 수 변화

목포 인구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목포시가 주변의 농촌인구를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60년대부터 도시 중심의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농촌이 몰락하여 이촌향도라는 이농현상이 심화되었다. 목포 주변의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목포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농촌 인구 중 상당수가 목포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목포의 인구 변화를 근접한 무안군과 신안군의 인구 변화와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목포시와 무안군·신안군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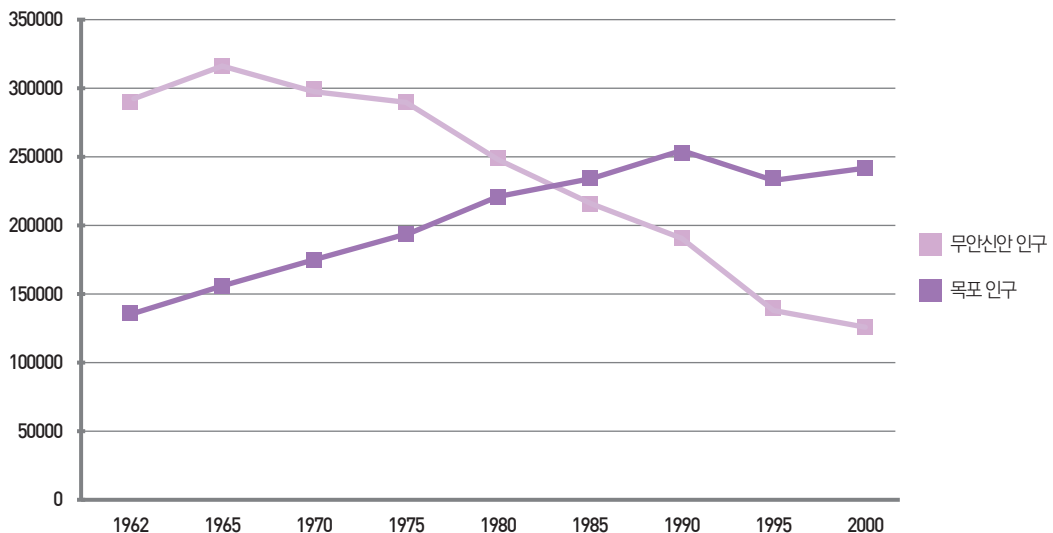


그림 5 목포시와 무안·신안 인구 변화 추이 비교

이 그림을 보면 증가하던 무안·신안 인구가 1965년부터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목포 인구는 1990년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약 2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목포

11) 이종화 외, 앞의 책, 50~54쪽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농촌인구가 목포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목포는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다른 일반적인 도시와 같이 학력인구 증가의 조건 하에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2. 1960~1970년대 학교 교육정책과 목포 교육

1960~1970년대 우리나라 학교 교육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학교 무입학시험제(1969)와 고등학교 평준화(1974)이다. 이러한 정책을 인구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붐이란 어떤 시대에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 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2~3년 후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를 베이비붐이라고 하며, 이 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 또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입학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커다란 인구 파도를 이루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1955년 출생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1960년대 중반부터 중학교 입학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즈음에 중학교 입학시험문제 중에 오류가 있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른바 ‘무즙 파동’이다. 1964년 서울시에서 출제된 중학교 입시 자연 문제에 엿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문제였다. 정답은 ‘디아스타제’였는데, 오답 처리된 ‘무즙’을 가지고도 엿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이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무즙도 정답으로 인정되어 서울시가 패소하게 되었다. 1점 차로 떨어진 학생들은 떨어졌던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학교 입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결국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늘어난 중학생들은 다시 고등학교 진학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마치 도미노처럼 중학교 입학경쟁을 해결하자 고등학교 입학경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등학교 진학경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4년 고교 평준화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먼저 실시되었고, 1975년 대전, 인천, 광주로 확대되었다. 고교 평준화제도는 전국 각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는데 목포시에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것은 1980년이였다.

목포시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1980년에 도입하였다가 1990년에 다시 비평준화지역으로 돌아갔

다.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고교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지역별 실정에 따라 고교별 입시를 부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문교부 업무 계획에 반영하였다. 목포에서는 대도시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목포시 교육발전 협의회, 육성회 등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목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990년에 목포는 다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였다.¹²⁾

비평준화제도를 운영하던 목포는 커다란 사회적 교육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 이후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하였고, 입시제도도 크게 변화하였다.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입제도를 도입하고,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을 강화하면서 비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불리하게 되었다. 또한 비평준화지역인 목포는 고교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과외부담, 위화감이 증가하여 목포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커지게 되었다. 목포는 여러 차례 고교평준화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2003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1.3%의 압도적인 시민들이 고교평준화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목포는 순천, 여수와 함께 2005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¹³⁾

3. 목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의 변화

목포 초·중·고등학교 1개 학년 학생 수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1980년대 초까지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198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고등학생은 1980년대 말까지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대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1970년대 말 초등학생 수에 비해 중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목포의 고등학생 수는 1980년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목포의 중학생 수가 1984년까지 증가했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 중학생이 모두 목포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면 1987년까지는 고등학생 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부터 목포의 고등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된 것은, 학생 인구의 자연 증감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목포에 시행하면서 고등학생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2)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440쪽.

13) 『한겨레신문』 2004. 01. 19. 「목포·여수·순천 내년 고교평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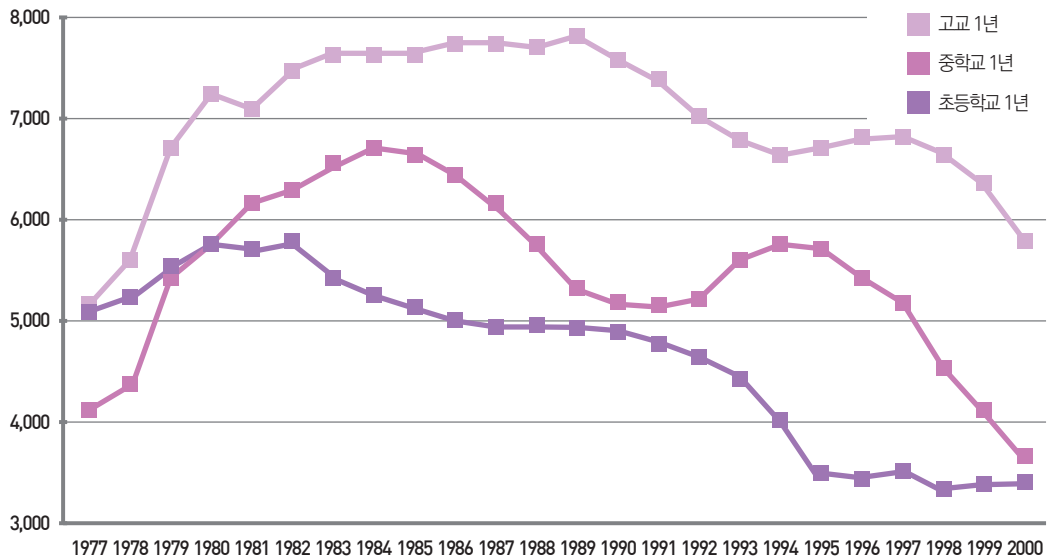


그림 6 197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 목포시 초·중·고등학교 1개 학년 학생 수 변화

1980년대 초등학생 수와 중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베이비붐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베이비붐은 1960년대 중반에 사라져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수가 증가하다가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자녀들 수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수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4. 1960~1980년대 목포 학교의 변화

1960~1970년대 목포에는 다수의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의 경우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분리·설립되었고, 1970년대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 설립된 중·고등학교 중 3개교, 즉 목포 해인여중, 목포덕인실업고, 목포해인여자실업고가 학교법인 덕인학원에 의해 설립된 것이었다. 학교 법인 덕인학원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사학재단이다. 이 재단이 설립한 최초의 학교는 목포 덕인중학교로 1954년에 개교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목포교육대학이 목포 사범학교에서 승격되었고, 현재 목포에 있는 대학들이 1960~1970년대에 대부분 설립되었다. 해방 직후에 설립된 목포사범학교는 2년제 고등교육기관인

목포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다가 1978년 목포초급대학으로 개편되었다. 목포 사범학교에 부속되어 있던 목포부속국민학교는 목포 교대 부속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1964), 목포교대가 광주교대에 흡수 통합된 1978년에는 광주교육대학 목포부속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외에 목포 가톨릭대학의 전신인 골롬반간호학교가 1966년에 설립되었고, 목포과학대의 전신인 목포실업전문학교가 1976년에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목포의 고등교육기관은 대부분 1960~1970년대에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학교가 계속 설립되어,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의 여건이 개선되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2개 등 5개교가 설립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목포에 설립된 학교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1960~1980년대 목포시 초·중·고등 교육기관 설립 현황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초등학교	목포남초(1964) 목포서산초(1967) 목포대성초(1969)	목포용호초(1970) 목포삼학초(1977)	목포연동초(1981) 목포대연초(1983)
중학교	목포해인여중(1966) ¹⁴⁾ 목포마리아회중(1967)	목포청호중(1971) 목포홍일중(1976, 구 동광중) 목포향도여중(1979)	목포영화중(1983)
고등학교	목포정명여고(1962, 중학교에서 분리) 목포덕인실업고(1964) → 목포덕인종합고(1971) → 목포덕인고(1973) ¹⁵⁾ 목포해인여자실업고(1967) → 목포해인여자종합고(1972) → 목포해인여고(1973) 목포제일여고(1967)	목포여상(1973) 목포마리아회고(1974) 목포홍일고(1976, 구 동광고)	목포신명여상(1984) 목포중앙고(1985)
고등교육기관	목포교육대학(1964, 목포대의 전신) 골롬반간호학교(1966, 목포 가톨릭대의 전신)	목포실업전문학교(1976, 구 목포과학대) 목포초급대학(1978, 목포교대에서 개편) 목포대학교(1979, 목포초급대학에서 승격)	목포전문대학(1985, 목포 실업전문학교가 개명)

출전: 목포시, 『목포시사 1980~1994.』, 1997 및 목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mped.jne.go.kr>)의 학교 현황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14) 목포해인여자종합학교는 1965년 12월 7일에 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학생모집은 1966년 3월인 것으로 추정되어 1966년을 개교년도로 기록하였음.

15) 목포시사에서는 목포 덕인고가 목포 덕인실업고로 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덕인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다음백과사전에는 덕인고로 개교하였다고 명시하였음. 여기서는 목포시사의 기록이 더 자세하고 오래된 기록이어서 목포시사의 기록을 따름.

5. 목포 고등교육의 상징: 국립 목포대학교

목포시에 있는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교가 목포대학교이다. 목포대학교는 1946년 중등수준인 목포 사범학교로 개교한 이래 폐교 위기를 겪으며 발전해왔다. 개교 이래 70년간의 목포대학교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목포대학교는 1946년 10월 31일 목포사범학교에서 시작되었다. 해방 직후 부족한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범학교를 급히 신설해야 했다. 미군정당국은 남한의 사범학교를 8개 증설하여 사범학교를 10개에서 18개로 늘렸다. 이 때 목포 사범학교가 신설된 것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학교가 고등학교 수준이라는 점은 1950년대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이었다. 중등교육 수준이었던 사범학교를 고등교육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요구의 결과로 1962년 사범학교를 2년제 국립교육대학으로 승격하여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목포 사범학교는 1963년 2월 폐교되고, 목포 교육대학으로 전환되었다. 목포 교육대학은 목포 사범대학이 폐교된 지 1년이 지난 1964년에 목포시 용해동으로 자리를 옮겨 개교하게 되었다.

목포 교육대학은 1970년대 후반기에 들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수가 학교에서 필요한 수보다 많아지자 교육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기 된 것이었다. 정부가 교대 '1도 1교' 원칙을 세우고, 각 시도에 교대가 2개교 이상인 지역은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목포 교대가 폐교되기 1년 전 목포 교대 주도하에 '목포 대학 설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에 대학이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위원회는 20여회에 걸쳐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문교사회위원회, 문교부 장관실 등에 들러 새 대학 설립의 절실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호소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1978년 10월 목포 대학 설립 인가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목포 교대는 광주 교대와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지만, 목포에는 2년제 목포 초급대학이 설립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979년 3월 목포대학은 7개학과 모집정원 320명으로 출범하였다. 1989년에는 총 36개학과에 모집정원이 1,280명에 달하였고, 1988년에는 대학원이 신설되어 11개 학과에서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목포대학은 1990년 3월부터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2017년 현재 8개 단과대학 47개 학과에 모집정원 1,606명 재학생 6,694명에 이르고 있다.

6. 학력인정 비정규교육기관: 목포 제일 정보 중·고등학교

정규 학교 교육기관과 함께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 교육기관도 시민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해방 이후부터 시작된 공민학교일 것이다. 공민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기관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문해 교육을 포함하여 중등 수준의 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지금은 비정규 교육기관인 공민학교는 이제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고 그 뒤를 평생교육기관이 이어 시민들의 학습을 돕고 있다.

1980년대에 비정규교육기관 중에서 학력인정을 받는 교육기관이나 과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법에 따라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등교육과 사회교육, 직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전라남도에서는 목포 향토학교가 1986년 문교부지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되었다. 당시 목포 향토학교는 중학교 6학급 360명, 고등학교 6학급 360명의 규모로 1986년 3월 1일 개교하였다.¹⁶⁾

목포향토학교는 1987년 3월 19일에 목포 제일종합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0년에는 목포 제일정보중·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교육감지정 학력인정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중학교 9학급 375명, 고등학교 12학급 585명이다. 이와 함께 학령기가 지난 성인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성인 학생 현황은 <표 6>과 같다.¹⁷⁾

표 6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성인 학생 현황(2017. 04. 01.)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총학생수
중학교	학급수	5	4	-	9	960
	학생 수	200	175	-	375	
고등학교	학급수	6	6	-	12	
	학생 수	326	229	-	585	

16)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교육 60년사』하, 2005, 132쪽.

17)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홈페이지(<http://jis.hs.jne.kr>).

제3절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의 특징

1. 5·31교육개혁 이전 시대의 배경 및 특징

1990년대 이후 기나긴 군부 정권의 독재가 끝이 나면서 국가가 독점하고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교육을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정책이 1995년에 이루어진 5·31 교육개혁 방안이다. 이 방안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열린사회, 열린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주체들 특히 학습자들이 주체가 된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전반을 쇄신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5·31교육정책의 범위는 초,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망라할 뿐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학습하는 사회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 단위학교 책임경영,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었다.¹⁸⁾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가 교육을 운영하는 전체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이 교육 이념을 국가 교육과정, 시험 및 선발, 학교 형태와 학교 운영 및 교육 자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시켜 나갔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공표된 이후에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지속되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정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하여 순회교사, 시간제 교사, 복수전공 교사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교사들을 '교육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하면서 비정규직 교사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획일화된 학교 체제도 변화하고자 하였다.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한 이래 고등학교의 종류가 하나로 제한되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1992년 외국어고등학교에 특수목적고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에, 1999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시험형태로 운영하고, 2002년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를 설립하고, 2003년에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을 설립하면서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되었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각 정부들이 어떠한 정책을 시행했는지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1995년 5·31방안을 처음 발표한 김영삼 정부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이념 하에, 민간주도적인 교육 운영을 지향하고 있었다. 학습자는 교육을 소비하는 주체이고, 교육자는 교육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식하여 소비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리로 교육을 인식하기

18) 이수광 외, 『4·16교육체제 비전과 전략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5.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교육을 소비자 또는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7 5·31 교육방안 이후 각 정부별 교육정책의 특징

정부	특징	시장경쟁수요자 중심	자율성	공공성(평등·복지)
김영삼 정부		자사고 추진, 초빙교장제 대학 자율선발 확대 시도 교육청 평가 도입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기간제 교사제 도입	열린교육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김대중 정부		국가수준 학교평가 시도교육청평가 자사고 시범운영 성과급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정년단축 조기영어	자율학교 시범운영	2002 대학무시험전형 추진
노무현 정부		학업성취도 평가 법제화 시도교육청평가 교원평가 전면화 조기영어 순회교사제 도입	교장공모제 (내부형, 개방형) 도입	대입 3불 원칙 수능 비중 축소, 내신 비중 확대 자율학교,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방과후 학교 추진 1군 1우수고 추진
이명박 정부		미래형 교육과정 실시 영어몰입교육, 자사고 확대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실시 기간제·상치·순회교사 증대 교장공모제 개악(내부형 축소) 시·도교육청평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추진 취업률 중심 대학 평가 중앙정부의 지방지원 축소	일부 지방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수준 폐지
박근혜 정부		평가를 통한 대학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고교학점제	교육감 권한 강화로 교육자치 강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고교 무성교육 추진 유치원의 공적 지원 강화 고등교육 국가지원 강화 자사고·외고 폐지

출전: 전교조, 5·31교육개혁안 11년, 「5·31교육개혁의 완성인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인가?」의 내용을 토대로 이수광 외, 「4·16교육체제 비전과 전략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5에 집필한 것임. 여기서는 필자가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음.

김대중 정부도 이러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 평가를 비롯하여, 국가수준 학교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와 같은 제도가 실시되어 평가 체제가 강화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과급 실시, 교원정년 단축 등 교원과 관련된 정책도 시장경쟁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었다.

2002년 대입 무시험전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다. 획일적인 대

학시험 성적에 따라 학생모집을 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전공의 입학전형이 다 다르게 바뀐다면 더 이상 대입 시험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미리 탐색하여 그 전형에 맞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학생들은 더 이상 시험 점수에 따라 과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서 전공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의도가 순수한 것이었지만 정책의 결과는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자기 적성을 개발하기보다는 엄청나게 다양해진 입학전형에서 이른바 명문대를 가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분석해야 했다. 소위 명문대 유망 전공에 입학하기 위하여 수능, 내신 성적과 함께 많은 입학 전형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대학입학 준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교육에 시장경쟁의 원리가 너무 강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한 노무현 정부는 교육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3불 원칙(고교 서열화 금지, 본고사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을 대입제도에 적용시켜 대학입학경쟁이 가정의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학교를 법제화 하였으며,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했다.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였고, 1군 1우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달리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을 가장 본격적으로 도입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 정책이 아예 경제학과 경영학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교육의 공공성이 붕괴되고, 교육 전반에 시장 경쟁의 원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정도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모든 교육과정을 선택형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는 모든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선택형 교과를 늘렸다.

학교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 임용을 줄이고 기간제 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학교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라는 미명하에 자율형 사립 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고교입학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를 확대하여 고교평준화 체제를 사실상 붕괴시켰다.¹⁹⁾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의 원리를 학교 교육 전반에 적용시켜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질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 기조를 계승하고 있었다. 다만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된 대학입시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학 입학전형을 단순화하고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19) 『국민일보』 2013. 02. 05. 「이명박 정부 5년 교육정책 평가 (중) 고교다양화」.

이러한 명분과는 달리 수시를 통한 부정입학이 큰 문제가 되었다. 2016년 대통령의 측근 자녀가 부정입학을 한 것이 예외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특히 이른바 명문대학에서 특목고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수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정부가 가졌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교육을 개인의 탓으로 돌렸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취학 전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교육이 되도록 지원하고, 고등교육에서도 국공립 대학의 비율을 높이고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은 각 지역의 교육감이 책임지고 교육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체제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사고, 외고는 점차 폐지하여 일반 고등학교를 강화하되,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교육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1990년 이후 목포 학생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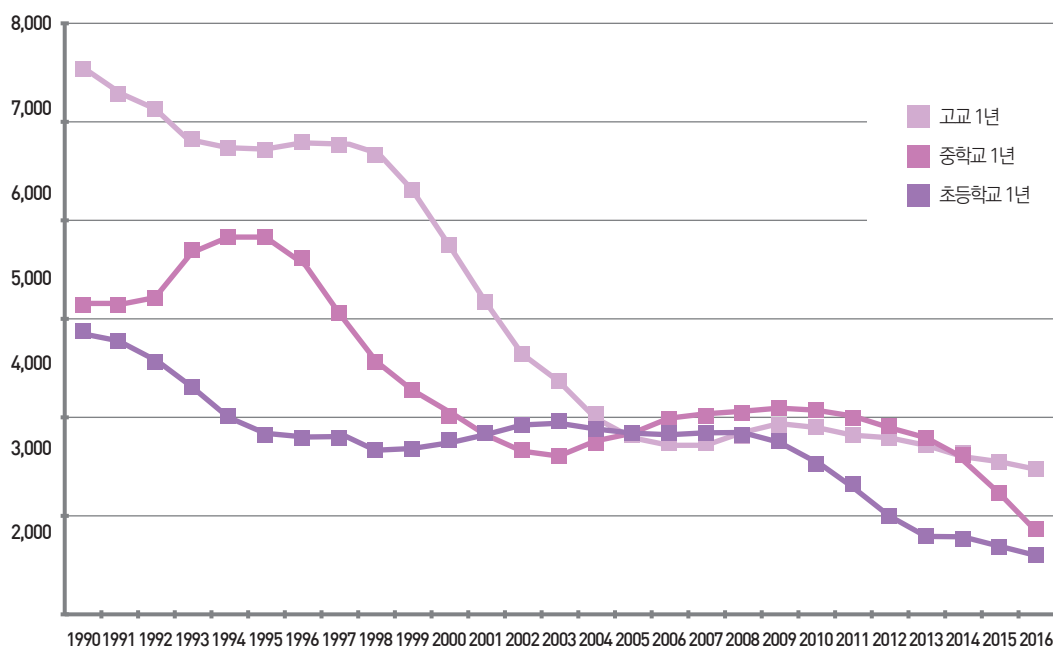


그림 7 1990년 이후 목포시 초·중·고등학교 1개 학년 학생 수 변화

1990년대 학생 수는 대체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이 2000년대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초등학교 수가 감소한 후에 중학생 수가 감소하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수적으로 감소한 초등학교들이 중학교를 진학하고, 또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중학생 수가 1995년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 감소한 것이 눈에 띄는 점이지만 이전 시대에 생겨난 베이비붐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 특이한 점은 아닐 것이다.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또 한 차례 인구 파동을 만든 후에도 학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년부터 초등학교 수가 급감하면서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 학생 모집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에 줄어든 초등학교생이 대학에 입학한 시기인 2015년 전후 시기부터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9학년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더 적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대학 입학정원을 축소하거나 상당 수 대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목포 하당 시대의 개막

1990년대 이후 목포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테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1990년대 초등학교가 6개교나 신설되었다. 이것은 당시 하당지구가 새로 개발된 것과 관련이 있다. 목포의 하당 지구는 1988년 신도시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995년 12월까지 택지 개발이 완료된 곳이다. 하당 1차지구가 84만평, 하당 2차 지구(매립지구)가 21만평으로 총 100만평 규모다.²⁰⁾ 목포의 신시가지인 하당지구가 개발되고 인구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초등학교가 6개교나 신설된 반면 중·고등학교는 1개교도 신설되지 않았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 지역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하당 지구는 1, 2차로 나뉘어 개발되었는데,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주택 건설용지가 32%, 상업용지는 16%, 그리고 공공용지가 52% 비율로 계획되었다. 하당지구는 상업용지가 주거용지의 1/2 정도의 규모인데 비해, 남악신도시의 상업지역 면적은 주거지역 면적의 1/10정도였다. 이 두 지역을

20) 이종화 외, 앞의 책, 36~37쪽.

비교하면 하당의 상업용지 비율이 어느 정도 과다하게 지정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²¹⁾

목포시에 하당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이 지역에 초등학교들이 대거 신설되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당지구에는 1990년대에는 상동초, 부영초, 하당초, 신흥초, 청호초 등 초등학교 5개교가 신설되었고, 2000년대에는 한빛초, 미향초, 석현초, 향도초, 애향초 등 5개교가 설립되었다. 하당지구의 중학교는 2005년 하당중학교가 설립되었다.

표 8 목포시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설립 현황(1990~2017)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7년 현재
초등학교	상동초(1991) 부영초(1994) 하당초(1996) 연산초(1996) 신흥초(1997) 청호초(1997)	한빛초(2001), 미향초(2003) 서해초(2003), 용해초(2005) 석현초(2005), 향도초(2006) 애향초(2007), 무안 남악초(2007)* 옥암초(2008)	영산초(2011) 부주초(2016) 백련초(2017)
중학교	-	하당중(2005) 옥암중(2007) 남악중(2008)*	애향중(2012)
고등학교	목포성신여자실업 고등학교(1996, 목포신명여자상업고가 개명)	전남제일고등학교로 개명(2001, 목포상 고가 개명) 목포성신고(2002, 목포성신여실이 개명) 남악 고등학교 개교(2008)*	목상고등학교로 개명(2014, 전남제일고등학교가 개명)
고등 교육기관	목포과학대학(1998, 목포전문대학이 개명) 목포가톨릭대학교(1999, 성신간호전문대학이 개명)		

출전: 목포시, 『목포시사 1980~1994.』, 1997. 목포시사 및 목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학교 현황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주: 무안 남악초, 무안 남악중, 무안 남악고는 모두 무안에 설립되었으나 무안 남악이 목포시와 접해 있어 사실상 목포시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음. 남악은 전라남도 도청이 설립된 곳으로 신도심의 성격을 띄며 목포 교육인구를 흡수하고 있음.

4. 남악 신도심의 개발과 학교 변화

남악신도시(南嶽新都市)는 전라남도 목포시 부주동, 옥암동, 삼향동과 무안군 삼향읍, 일로읍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다. 광주광역시에서 있던 전라남도청과 각종 유관 기관이 이전되면서 건설되고 있다. 2005년 전라남도청이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로 이전하면서 계획된 신도시로, 본래 목포시 옥암동의 미개발지구인 옥암지구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전라남도청이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로 이전되어 옥암지구를 편입하고 확대한 계획도시이다. 면적은 14.5km² (14539천m²)이다. 계획인구는 15만

21) 위와 같음.

명(4만 5천 세대)이고 시공업체는 동광건설 외 34개사이다. 목포시와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부지는 영산호 일부를 매립하여 이루어졌다.²²⁾

남악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민들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였다. 2007년에 애향초(2007), 남악초(2007), 옥암중(2007)이 신설되었고 이후에 초등학교는 옥암초(2008), 영산초(2011), 부주초(2016)가 남악지구에 설립되었고, 중학교는 남악중(2008), 애향중(2012)이 설립되었다.

이외에 목포시에 용해지구가 개발되면서 목포 용해초, 백련초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하당지구, 남악지구, 용해지구와 같이 목포에 새로 개발된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신설된 경우는 2008년 남악고등학교가 개교한 것뿐이었고, 2000년 이후 목포상고가 전남제일고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목상고등학교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고등교육기관은 신설된 경우는 없었고 모두 학교 이름만 바뀌었다. 1990년대에 목포전문대학이 목포과학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성신간호대학이 목포가톨릭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5. 고등학교의 체제의 변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990년 평준화를 폐지하고 비평준화를 실시한 이후 15년 만인 2005년에 평준화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실시된 이후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있던 목포는 입학시험을 통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었다. 고교 입시를 유지하여 실력 있는 고등학생을 선발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통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졌다. 대입제도의 변화로 내신 성적이 중요해지면서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대학 입학 경쟁에서 더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의 부담뿐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중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결국 목포는 전남의 주요 도시인 순천, 여수와 함께 고교평준화를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실업계,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이름으로 바뀐 직업준비 고등학교는 한 때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점차 그 위상이 흔들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위기를 겪어 왔다. 전문계 고등학교(당시 실업계)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1970년대 중공업을 강화하여 노동인력이 많이 필요하면서부터 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전문계 고등학생 수는 1990년 80만 명을 최고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공업계열 보다는 상업계

22) Daum 위키백과 참조.

열 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 총 고등학생 중 전문계 학생의 비율은 2009년에 28만 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24.5% 정도다. 앞으로 10년 내 그 절반인 14만 명 정도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표 9>이다.²³⁾

표 9 전라남도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률과 취업률

(단위: 명, %)

연도	진학률	취업률
2001년	43.8	51.3
2002년	46.4	49.9
2003년	52.3	44.8
2004년	55.4	41.4
2005년	57.9	38.6
2006년	59.7	36.3
2007년	64.3	30.4
2008년	69.2	22.4
2009년	70.6	21.6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가 줄어드는 것은 오래 전부터 육체노동에 대한 경시와 고학력에 대한 선망으로 인해서 그렇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고졸 후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더라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한 산업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직업준비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의 25%가 ‘실업고 교육과정이 산업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²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특정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산업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함께 마이스터고를 설립하여 직업준비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목포지역에 있는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3) 강일국 외, 『무안·무안 사람들』, 경인문화사, 2011.

24) 교육혁신위원회,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5, 18쪽.

제4절 교육자치제 실시와 학교 교육 변화

정부중심의 억압적·통제적 교육정책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점차 자율적인 교육정책으로 변화해갔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지방교육자치제’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이미 1952년부터 실시되었지만 이름만 자치였지 자치가 아니었다.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 전까지 교육감을 중앙정부가 임명하여 중앙에서 교육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실제적인 힘이 실리게 된 것은 21세기에 와서야 가능하였다. 전남에서 주민이 교육감을 최초로 선발한 것은 2010년이였다. 전남 지역 최초의 교육감은 16대 교육감인 장만채 교육감이였다. 장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목표 아래 학교 운영을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원 업무를 경감하도록 교육행정 지원팀을 강화하고, 혁신학교의 일종인 무지개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직선제 교육감 시대에 추구하고 있는 교육 정책인 학교 자치 강화, 혁신적 학교인 무지개 학교, 교원 업무 경감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치 강화: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 학생 자치회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교육주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임기 내내 문제가 되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다는 것이다. 소위 교권이 침해될 받는다는 비난이 있었다. 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등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포함하였지만,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위 서울, 경기, 광주 지역 진보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였다. 학생 체벌에 익숙한 교사들은 당장 효과적인 수업 방식을 개발하지 못해 애를 먹었고, 수업 내 질서 유지가 힘들었다. 이런 어려움에도 점차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착이 되었다. 교사들도 체벌 없이 성공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전남 교육감도 이러한 방향을 모색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였다. 다만 학생들의 권한을 학부모, 학생, 교사의 협의하에서 일정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권조례도

학교 공동체 조례로 바꾸어서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른 형태를 모색하였다. 현재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다.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총칙	교육 공동체 인권보장의 당위성과 법률적 근거,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교육감의 책임, 구성원 상호간 인권 존중 명시 (제1조~제3조)
제2장	학생의 권리에 대해 폭력 거부, 학습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 보호 등 추상적 규정, 구체적 규정, 정책적 노력 의무 등을 순서대로 명시(제4조~제23조)
제3장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학생의 이익과 인권 보장 요구, 학부모의 권리 보호 등을 명시(제24조~제29조)
제4장	교원의 권리에 대해 권한 존중, 교권보호, 수업권 보장 등을 명시(제30조~제35조)
제5장	교육공동체의 인권보장을 위한 책임에 대해 학교규정 준수, 교육의 공동책임, 생활지원등을 명시(제36조~제49조)
제6장	인권 진흥을 위해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주제별 참여위원회 설치 및 시민사회활동 지원, 현장 안착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인권 교육센터 설치 등을 명시(제50조~제61조)
제7장	교육공동체의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해 인권옹호관 설치와 직무, 교육지원청 인권 상담실 설치·운영, 인권 침해 구제 신청 및 조치에 대해 명시(제62조~제68조)

출전: 전라남도교육청, 『함께하는 전남교육 2010~2014.』, 2014, 273쪽.

이 조례를 통하여 학생 자치활동도 강화하였다.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제도화 하였고,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생회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 대안적 학교 모델: 무지개 학교, 혁신학교

학교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는 학교 전체가 구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학교 모델이 혁신학교 또는 무지개 학교이다. 이 학교의 틀은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특징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된 학교의 예는 남한산 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의 운영형태를 바꿈으로써 학교를 살릴 수 있었다. 이 학교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같은 교육이념을 가진 교원 공동체가 있었다. 이 때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는 필수적이다.

둘째 이 학교는 민주적 의사 결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원 공동체는 민주적 협의를 통하여 의사

를 결정한다. 이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까지 확대되어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한다. 교원 공동체는 학교 주체들의 공동체로 확산되었다.

셋째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존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열린 교육의 이념과 같이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관념을 깨고 창의적인 수업을 모색하였다.

넷째 학업 성적에만 치중하는 교육이 아니라 즐겁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였다. 성적을 잘 올리는 학교가 성공한다는 공식을 깬 것이다. 학생들이 즐겁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자 학습 효과도 올라갔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다섯째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도 강화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학부모의 지원은 학교 운영에까지 확대되어 일정 정도 학교 운영에 학부모가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도입하여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이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뜻이 있는 교장을 공모하고, 이 교장을 중심으로 같은 이념을 가진 교사들을 이 학교로 오게 한다. 이 교원들에게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개혁에 힘을 실어 준다.

혁신학교나 무지개 학교의 성공 여부는 학문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혁신학교나 무지개 학교는 그 지역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학생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고민을 하는 혁신학교나 무지개 학교를 종종 볼 수 있다.

전남의 혁신학교인 무지개 학교는 2010년 8개였던 것이 2017년 88개로 늘어났다. 학교 수준별로 보면 유치원 1개, 초등학교 64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3개로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가 많은 편이다.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아직은 도입 단계이다.

유형별로 보면 도시형 12개, 도시 근교형 8개, 농어촌형 68개로 농어촌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 있는 5개의 도시에 12개의 무지개 학교가 있고, 17개 군 지역에 76개의 무지개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무지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목포에는 목포 산정초등학교, 목포 청호중학교, 목포 여자중학교 등 3개가 무지개 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목포 산정초등학교는 무지개 올림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무지개 올림학교란 6년 동안 운영 성과가 뛰어난 학교로서 일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학교 공개와 연수기관 역할을 담당할 모델학교를 말한다. 2017년 현재 목포와 목포 인근 지역에 무지개 학교 지정 상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목포 및 목포 인근 군 지역 무지개 학교 현황(2017)

구분	학교급	학교명	지정연도
목포	초	목포산정초등학교(울림)	2011
	중	목포청호중학교	2012
	중	목포여자중학교	2016
영암	초	학산초등학교	2016
	중	삼호중학교	2012
무안	초	청계남초등학교	2011
	중	무안몽탄중학교	2015
신안	초	임해동초등학교	2014
	초	도초초등학교	2015
	초	증도초등학교	2015

3. 교원 업무 경감

교원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다. 이 팀은 교감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 전담 교사들이 이끌어 간다. 전남 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여 행정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가 경감이 되어 교육에 더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교무행정 전담팀의 구성 및 역할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교무행정 전담팀 구성 및 역할

구분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감, 교무행정사, 부장교사, 교과전담교사, 담임교사(기간제교사 포함), 기타인력 - 중·고·특수학교: 교감, 교무행정사, 부장교사, 비담임교사(기간제교사 포함), 기타인력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감(교감이 없는 학교는 부장교사): 총괄 - 부장교사 및 비담임(교과전담교사): 교무기획, 교육과정 편성, 학교행사 업무 계획·기획 업무 ○교무행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기획 및 인사 관련 공문을 제외한 교무행정 업무, 기안 및 예산 품의 등 - 공문서 수발, 계서 공문 관리, 자료 집계 시스템 운영

출전: 전라남도교육청, 『함께하는 전남교육 2010~2014』, 2014, 481쪽.

제5절 목포 현대 교육의 특징과 과제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억압되었던 교육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방 직후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은 주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일제에 의해 폐교되었던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15년 동안 많은 학교를 설립하였다. 일제하에서 억압되었던 교육 욕구가 분출되었고,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완전 문해 교육을 추진하던 정부의 정책과 맞물린 결과였다.

이 기간 동안 전남 전 지역에서는 초등교육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특히 신안, 완도, 진도와 같은 섬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육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초등교육의 경우 전남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증가하였지만 일제강점기와 비교하면 목포도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 중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 한국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는 일제하에서 세우지 못했던 중학교를 본격적으로 설립하였다. 1951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3년제로 나누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중학교·고등학교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가장 특이한 점은 한국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인구 파도를 만들었고, 그 이후의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1955년부터 약 10년 기간 동안 갑자기 늘어난 출생인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큰 경쟁이 일어났고, 이때마다 학교 제도가 변화되었다.

그 중 하나가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이다. 고교평준화는 대도시에서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여 목포에서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이였다. 목포에서는 약 10년간 고교평준화를 시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학생들이 목포로 진학하지 않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전출하자 고교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가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는 지역의 의견을 수용할 뜻을 밝히자 목포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고교 입시를 부활시켰다.

고교 입시를 시행하던 목포는 1990년대 이후 대학입시 체제가 바뀌고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교평준화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목포에서는 고교 입시 부담 때문에 중학교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컸다.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의 이점도 사라져서 더 이상 고교평준화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2005년 목포는 여수, 순천과 함께 고교평준화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1990년대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의 민주화를 선언하는 5·31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 국가가 독점하는 하향식 교육정책을 극복하고 학습자와 교육소비자가 주도하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정책은 자율성과 다양성의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위학교가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 교육자치 제도를 강화하였다.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고 학습자 혹은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교육의 자율성 강화라고 하는 5·31 교육정책의 기본 이념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을 극복하려는 정책은 학습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보다는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교육이 시장경쟁이나 자본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육 전반에 시장경쟁의 원리를 적용하자 상층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되어 큰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그것이 크게 심화된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 하에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 교육을 추진하고, 대학교육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교 입시가 사실상 부활하게 된 기존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선하여 일반 고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여 일반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목포도 이러한 국가의 교육 정책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포는 1990년대 신시가지인 하당지구가 개발되고, 2000년대 남악지구가 개발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이라는 양분된 지역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포지역 전체의 교육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는 것이 목포 교육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민선 교육감 체제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0년부터 실시된 민선 교육감체제하에서 실시된 학교자치 강화 정책, 혁신학교 정책, 교원 업무 경감 정책 등은 교육개혁 방향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전남의 혁신학교인 무지개 학교 제도 실시를 통해서 정부에서 강하게 지시하는 형태보다는 단위학교가 주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국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는 종속기구가 되어서도 안 되며, 일부 상층 학생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차별적인 교육기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 학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1%의 상층계급을 위해 99%의 시민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배우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목포에서도 이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방향 설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일국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다섯 마당 목포시사

2권 예향 목포

집필위원 (가나다순)

강 대 흘

(사)한국예총 목포연극협회 지부장

강 수 남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강 일 국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고 석 규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곽 행 구

광주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 선임연구원

김 병 원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김 선 태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양 호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대표

김 장 성

(사)한국예총 목포음악협회 지부장

류 용 철

목포시민신문 편집국장

박 종 길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손 유 진

손창식 석조전시관

손 창 식

손창식 석조전시관 관장

심 원 섭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엄 수 경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위 경 혜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유 수 영

다운아리랑 대표

이 경 업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기 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숙 진

(사)한국무용협회 목포지부장

이 유 리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이 윤 선

남도민속학회 회장

장 유 정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교양학부 교수

전 호 문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정 기 조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 서 경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연구교수

정 영 례

(사)한국무용협회 전남지회 상임고문

조 은 정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부교수

최 연 식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다섯 마당 목포시사

2권 예향 목포

발행처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편저	목포시사편찬위원회(고석규 외 28명)
총괄	목포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고석규
기획·편집	고석규, 나선휘, 조미은
교정·교열	나선휘, 조미은
행정지원	임진택, 정혜림
발행일	2017. 12. 31
디자인·편집·인쇄	이문
	전남 나주시 북망문길20 / 061-333-991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422 / 062-225-9913

다섯 마당 목포시사 ISBN 979-11-87136-00-2(전5권)

2권 예향 목포 ISBN 979-11-87136-02-6

〈비매품〉

다섯 마당 목포시사 전5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목포시와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木浦市史

제1권 향도 목포

제2권 예향 목포

제3권 일등 목포

제4권 터전 목포

제5권 기록 목포



ISBN 979-11-87136-02-6
ISBN 979-11-87136-00-2 (세트)